

제15집

# 逍遙의 脈



동두천문화원



A002300

東豆川文化院

0/

# 逍遙의 脈

제 15 집



東豆川文化院



# 목 차

- 4 화보/동두천문화원 행사
- 7 발간사 / 동두천문화원장 홍경섭
- 10 이임사 / 직전동두천문화원장 조인희
- 12 취임사 / 동두천문화원장 홍경섭

## 특별기고

- 16 聖人 轉禍爲福 / 대진대학교 교수 이경원
- 20 人間性 涵養을 위한 家庭教育 · 家庭文化  
小考 / 동두천문화원장 홍경섭

## 기획논단

- 25 타자로서의 번역극, 소통을 위한 기본전제  
/ 서울대강사 홍재범

##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 33 동두천시 탐동 상여소리

## 향토사 스페셜

- 37 양주(동두천)지역 의병 활동가들  
/ 중앙고등학교 교사 박재후

## 지명단편

- 45 못골 꽃순이 원귀 / 신흥고등학교 교감 이흥구

## 제2회 시민백일장 입상작 모음

### 시부문

- 50 장원-시월 / 김동순
- 51 차상-단풍 / 김용기

### 산문부문

- 52 장원-어머니의 길 / 이은영
- 54 차상-추억 / 김한하
- 55 심사평 / 시인 · 경희대학교수 나호열

## 동두천시 사회단체 과학행사

- 56 제2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축제  
/ 사회단체 어수회 사무국장 임완택

## 동두천시 전통 민속문화 소개

- 61 이담농악 / 동두천이담농악보존회
- 64 환경단체 안내 / 동두천환경운동연합

## 재해예방공모

- 65 최우수-또 다시 그 일이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이현정

## 교사시원

- 67 용두암에서 / 신흥중학교 교사 이명진
- 68 그리움 1 / 신흥중학교 교사 이명진



어유소장군 사당 신축

69 그리움 2 / 신흥중학교 교사 이명진

70 그리움 3 / 신흥중학교 교사 이명진

### 제13회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71 사생대회 입상작 모음

73 동두천시 초·중·고등 학생 백일장 심사평 / 동두천문인협회 이소립

### 고등부 산문

74 차상 - 아름다운 삶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백정아

75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 보령여자고등학교 정지은

77 차하 -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 보령여자고등학교 신다미

79 아름다운 삶, 어머니의 사랑 / 동두천고등학교 진성미

81 가족이 있는 삶 / 동두천고등학교 김경아

82 입선 - 그렇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 동두천고등학교 김선화

83 아름다운 삶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조용심

84 인생은 아름다워 / 보령여자고등학교 김진주

86 지금 나는 / 동두천고등학교 오상미

### 고등부 운문

88 차상 - 나를 위한 의자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백가예

89 <나는 지금> 이데아는 없다 / 보령여자고등학교 황혜영

90 아름다운 삶 /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윤이나

91 하늘이시여 /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윤이나

92 꿈 밖의 세상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홍민식

93 입선 - 나의 삶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강영철

94 마음 속에 그려진 하늘 / 보령여자고등학교 장도열

95 하늘 / 동두천고등학교 홍승표

96 청공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박선영

### 중등부 산문

97 대상 - 같은 색, 같은 향 / 동두천여자중학교 전은미

99 차상 - 유행과 개성 / 동두천여자중학교 오자연

100 해와달 / 보령여자중학교 박다롱

102 차하 - 유유히 흐르는 강물 / 신흥중학교 남재우

104 초록강의 속삭임 / 보령여자중학교 조현경

105 아저씨의 꿈 / 동두천여자중학교 홍란

107 입선 - 유행 / 신흥중학교 성명훈

108 또 하나의 나 / 보령여자중학교 한미희

110 소중한 친구 / 동두천여자중학교 박민경

112 인생이라는 길의 동반자 / 신흥중학교 조세형

114 우리가 친구인 이유 / 동두천중학교 김아림

### 중등부 운문

116 차상 - 사진속에서 / 신흥중학교 변기돈



- 117 어머니 / 신흥중학교 최경일  
 118 날마다 꾸는 꿈 / 보영여자중학교 김해룡  
 119 동두천사랑 / 보영여자중학교 김해룡  
 120 차하 - 강물이 말해준 것 / 보영여자중학교 신희선  
 121 세월속의 늪어버린 강 / 보영여자중학교 김상은  
 122 날마다 꾸는 꿈 / 이진필

### 초등부 산문

- 123 대상 - 아빠 / 생연초등학교 이소희  
 124 차상 - 아빠와 고궁에 가던 날 / 동보초등학교 전민석  
 125 찬우의 비밀 / 동두천초등학교 임선화  
 127 차하 - 청소 / 생연초등학교 송안젤라  
 128 검둥이 내동생 / 동보초등학교 전소희  
 129 물방울의 비밀 속삭임 / 생연초등학교 이동주  
 130 가작 - 동생과 나 / 생연초등학교 김지연  
 131 나의 비밀 / 동두천초등학교 윤소희  
 132 나의 영원한 친구 / 동두천초등학교 방승현  
 134 동생 / 보산초등학교 홍지현  
 135 청소 / 생연초등학교 강유정  
 136 소중한 비밀 / 소요초등학교 나현정  
 137 참 좋은 아빠 / 생연초등학교 이주훈  
 138 아빠 / 탐동초등학교 김은별  
 139 동생 / 탐동초등학교 최재우  
 140 쌍둥이 내 동생 / 동두천초등학교 이단비

### 초등부 운문

- 141 대상 - 편지 / 보산초등학교 황은서  
 142 차상 - 마음속의 비밀 / 동보초등학교 강보라  
 143 청소 / 생연초등학교 김형균  
 144 차하 - 편지왔어요 / 보산초등학교 박미혜  
 145 편지를 쓰세요 / 보산초등학교 신현정  
 146 동생 / 보산초등학교 김단비  
 147 가작 - 청소 / 보산초등학교 이민지  
 148 편지 / 보산초등학교 이민지  
 149 엄마의 마지막 선물 / 동보초등학교 이금나  
 150 사랑의 편지 / 보산초등학교 엄진희  
 151 아빠 얼굴 / 동보초등학교 최진수  
 152 비밀 / 보산초등학교 이수진  
 153 편지 / 보산초등학교 김해진  
 154 청소 / 보산초등학교 김해진

### 155 시민의장 수상자

# 문화원 행사



서예전시회



동두천문화원장 이·취임식



2001 문화학교 수료식



행 단제



지역문화 시민교육



한가위, 이웃과 함께



# 문학원 행사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1)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2)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소요문화제



사물반



동두천문화원 임시총회

# 문화원 행사



꽃꽂이 반



문화학교 꽃꽂이 발표회



향토유적답사



삼충단제향



2001 문화학교 수료식(1)



2001 문화학교 수료식(2)



# 발 간 사

## 새로운 문화시대의 창조를 위해



홍 경 섭  
동두천문화원장

21세기를 가리켜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정보화 시대요, 문화의 시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문화중시의 탈산업사회로 급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세계사의 커다란 전환속에서 새로운 문화수용과 창조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수용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20세기가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인간의 물질적 행복증진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부르고, 또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인식에서입니다.

문명비평가 다니엘 벨도 “미래사회의 경쟁은 문화 및 문화생산력의 경쟁이며, 문화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21세기가 한국문화의 제3의 중흥기가 되리라 내다보고 있는 터입니다. 15세기 세종(世宗)시대, 18세기 영·정조(英·正祖) 시대에 이어 3세기만에 되몰아치는 제3의 문화중흥기(文化中興期)로, 그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하는 <市民의 時代>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문화지향의 삶과 문화공유의 시대적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바, 문화창출의 사명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요소(要素)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문화는  
인간의 진(眞)·선(善)·미(美)·  
성(聖)의 이상(理想)을 추구하고,  
계몽(啓蒙)하고  
이끌어내 순수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고도의 정신적인  
덕(德)이며 그 소산(所産)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지속성(持續性-continuity)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위에 문화의 꽃을 피워 온지 어언 41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채찍으로 면면히 동두천 문화  
사(文化史)를 엮어 왔습니다. 그간의 형용키 어려운  
고난을 감내하고 혼돈 속에서도 문예중흥(文藝中興)  
의 꿈을 키우면서 걸어온 <逍遙의脈>이 지학(志學)의  
나일로 성장, 제15집을 세상에 내놓게 됨을 매우 기  
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란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용하는 모든 가치와 사물을 말합니다. 인간생활  
에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  
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문화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주의로만 치닫던 인류가 21세기를 맞  
이하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은 참으로 다  
행한 일입니다.

인간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이 한 인격체(人格體)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은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운데서도 문화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요소(要素)입니다. 따라서 참  
다운 문화는 인간의 진(眞)·선(善)·미(美)·성(聖)의  
이상(理想)을 추구하고, 계몽(啓蒙)하고 이끌어내 순수  
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고도의 정신적인 덕(德)이며  
그 소산(所産)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지속성  
(持續性-continuity)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하  
는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  
시하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의 사고(思考)와 행동이 이  
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제는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아직도 낮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소요산(逍遙山)  
높은 기상(氣象),  
맑은 정기(精氣)의  
지혜와 슬기로  
과감히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意志)로  
지역문화의  
미개지(未開地)를  
개간(開墾-cultivation)하고  
교화(敎化-culture)해  
나가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늘 뒷전으로 밀려온 것이 문화라고 볼 적에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몹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화의 정신적 힘을 국민에너지로 재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를 재인식하는 신사년 12월의 세모(歲暮)였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소요산(逍遙山) 높은 기상(氣象), 맑은 정기(精氣)의 지혜와 슬기로 과감히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意志)로 지역문화의 미개지(未開地)를 개간(開墾-cultivation)하고 교화(敎化-culture)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조사연구된 향토사(鄉土史), 민담(民譚) 및 유적사례(遺跡史例)등을 재검증하고 보강 발전시키며, 시민 여러분의 생각들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발전적인 체제로 「소요의 맥」을 구성하고 동두천(東豆川)을 읽을 수 있는 종합 문화 예술지(誌)로서 격(格)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주제(主題)별로, 예컨대 인간존중의 생명문화, 한글문화, 독서문화, 음주문화 등의 「학술논단」(學術論壇)을 연차적으로 간행 보급함으로서 지적(知的)인 정신문화를 가꾸어 가는데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소요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심(初心)의 각오로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壬午年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오복(五福)을 누리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 이 임 사



조 인 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저의 이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문화원연합회 이수홍 회장과 경기도 송승영 지회장, 목요상 국회의원, 방제환 시장, 김택기 시의회의장, 박지영 교육장, 정성호 새천년민주당 동두천 양주지구당 위원장, 김정수, 노시범 도의원, 동두천시 시의원 여러분, 각급 학교장, 유관 기관 단체장, 동두천문화원 가족들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의 회장님과 회원동지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문화원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 '91년 5월 김성근 전 원장님께서 동두천 시의회로 진출하면서 당시 부원장이었던 제가 자연스럽게 원장직을 이어 받아 10년 5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물러나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몇가지 보람스러웠던 일과 아쉬웠던 일들을 회고해 봅니다.

먼저 보람스러웠던 일로는 '94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5개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실시한 결과 방제환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사심없는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전국 각 지방 문화이 견학을 오는 등, 지금도 청소년 문화 학교때 설치한 시청각 기자재는 동두천 전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학교 또한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문화부장관과 문화학교 교장인 제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수료증만도 1000여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도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해마다 한 수 이남 대도시에서만 개최하던 것을 처음으로 한수 이북이고 조그만 도시인 본 동두천시에서 개최하여 동두천 여상이 주축이 된 ‘이담농악’으로 대상을 받는 등, 그동안 송내리와 하봉암리에서 산발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농악을 재구성하여 확실한 동두천의 풍물놀이로 자리매김한 것들은 잊지 못할 성과 중의 하나라고 자부해 봅니다.

또한, 동두천에 사임당회가 있고 문인협회가 발족하는 등, 예총지부가 결성된 것 또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원이 독자 원사를 갖지 못한 점과 문화원 육성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얻어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마련하는 것 등은 차기 문화원장으로 피선되신 홍경섭 신임 원장님의 몫으로 남겨 두고 훌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물려갑니다.

감사합니다.

# 취임사



홍 경 섭

21세기 새천년, 첫 수확의 계절인 황금 10월  
이자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동두천문화원 제5대 원  
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  
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충  
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10여개 성상, 헌신적인 봉사와 부단한  
노력으로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여, 큰 발자취를 남기고 이임하시는 조인희  
원장님께 진심으로 경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를 일컬어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정보화  
시대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대는 물질문명 중심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정보, 문화중심의 탈산업사회로 급변해 가  
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세계사의 커다란 전환  
속에서 새로운 문화수용과 창조를 요구받는 시  
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수용과 발상의 전환이 절  
실하게 요청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권력이  
동”이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에 이르러  
서는 “삶의 질” 자체가 곧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의 문화는  
 높은 문화이고,  
 어느 나라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우열의 등급 매김은  
 무의미하며,  
 서로 다르다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국민의 정체성의  
 바로미터이며,  
 동시에 건전한  
 문화정신은  
 품격 있는 문화창달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만능의 시대에서는  
 문화 또한  
 '경제적 자산'이라고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역설한 것처럼  
 문화의 영역은  
 실로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삶의 질을 세가지 단어로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H. Human -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 둘째 D. Development -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셋째 I. Index - 문화생활을 어느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낱말들의 머리 글자만을 따서 표기한 'HDI'를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며, 삶의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인류사회가 대대로 살아오면서 ‘학습’한 것들을 쌓아 놓은 유형, 무형의 축적물로서 민족과 나라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창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분야를 말합니다.

어느 민족의 문화는 높은 문화이고, 어느 나라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우열의 등급 매김은 무의미하며, 서로 다르다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국민의 정체성의 바로미터이며, 동시에 건전한 문화정신은 품격 있는 문화창달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만능의 시대에서는 문화 또한 ‘경제적 자산’이라고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역설한 것처럼 문화의

예술의 향수는  
곧 인권이며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는  
곧 인간가치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존엄성을  
고양시켜 주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역은 실로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살아서 숨쉬는 생존의 차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 문화원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가는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왕에 연구 조사된 향토의 역사, 발굴된 유적, 전승되고 있는 민요, 구전민담 등을 재검증하여 널리 보급, 발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간행되어 온 「소요의 맥」을 시민 여러분의 생각들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발전적인 체제로 구성하고, 나아가 동두천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예술 간행물로서의 격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도덕문화’, ‘한글문화’, ‘독서문화’, ‘언어문화’등의 「학술논단」을 연차적으로 간행 보급함으로써 지적인 정신문화를 가꾸어 가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문화적 공동생활에 참여하여 예술을 향유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술의 향수는 곧 인권이며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는 곧 인간가치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존엄성을 고양시켜 주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풍토의 조성, 문화의식의 함양,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지적 정신문화의 정립 등 일련의 문화형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또한



한 유전 공학자는  
 “Deep Change,  
 or Slow Death  
 (철저하게 변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인  
 힘은 그 민족의  
 문화적 예술적  
 창조능력이 새로운  
 현실에 변화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두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지  
 도 편달과 계도 그리고 끊임없는 성원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컨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서울 정도  
 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유전 공학자는 “Deep  
 Change, or Slow Death(철저하게 변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라고 외친 바 있습니  
 다.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교  
 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  
 적인 힘은 그 민족의 문화적 예술적 창조능력이 새로  
 운 현실에 변화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잃었을 때 그  
 민족은 침체되며,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그 국  
 가는 발전하고 번영합니다.



이경원 | 대진대학교 교수, 경제학 박사

## 聖人 轉禍爲福

중국의 전국시대 6국 즉 한(韓), 위(魏), 조(趙), 연(燕), 제(濟), 초(楚)의 재상을 겸임했던 소진(蘇秦)이 말하여 유명해진 말 가운데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이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이 후한서(後漢書)에는 다음과 같은 글로 쓰여있다. “훌륭한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들었고, 실패한 것으로 인해 공을 쌓았다.”(聖人 轉禍爲福 因敗爲功)라고. 한학을 많이 하지 않은 필자가 건방지게 한문(漢文)을 들먹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위복”이란 말을 오늘의 화두(話頭)로 삼고 싶어서이다. 그런데 유식한 체 한문원전을 들먹이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그래도 족보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훌륭한 사람(聖人)은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든다는 말에 유의를 하자는 말이다. 족보가 있는 오래된 말은 그것이 긴 인류사상 오랫동안 검증받은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값어치가 있는 말이다. 어떤 일에서나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일의 효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크게는 인류의 행불행, 작게는 한 국가의 성쇠(盛衰), 또는 한 도시나 지역사회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의 변성과 쇠락도 결국에는 그 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미국 성공의 주원인이 된 영국 계몽사상(Aglo-Scottish enlightenment)의 핵심이기도 하다. 즉 미국인들은 사회의 발전 개선을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력해서 얻어야지 위에 있는 어떤 지배세력 또는 단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는 일도 사람에게 달렸다고 하는 성인전화위복(聖人轉禍爲福)이라는 말과 영국계몽사상은 일맥상통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동두천은 그 특징이 있는 도시다. 그 특징들을 흔히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서 고속도로와 전철만 있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 서울 중심 기준으로 수원, 양평, 강화, 포천보다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곳,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곳, 인



구가 지난 20년간 늘어나지 않은 곳, 자녀 교육 때문에 현대판 이산가족이 많은 곳,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곳, 수해가 잘 나는 곳, 소요산이 있는 곳 등등. 모두 나열하자면 꽤나 긴 리스트가 된다. 그러나 이 특징들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서울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소요산과 같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도 서울 북쪽 소위 전방에 있어 경제 개발시대에 소외가 되었으며,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돈벌이는 동두천에서 살림은 다른 곳에서 하거나 자녀만을 타지로 유학시키는 신판 이산가족이 많다는 등의 얘기이다. 그러나 다른 일이 그렇듯이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과의 거리는 이제 2004년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전철과 고속화도로 때문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고, 개발이 안된 것은 오히려 마구잡이 개발보다 보다 훌륭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다른 도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잘하면 오히려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고, 열악하다고 하는 교육환경 문제도 무작정 대학이 있어야지 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좋게 하면 이산가족도 줄이고 타지에 살림하며 동두천으로 출퇴근하는 고통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일이다. 미군 주둔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동두천 인구의 80% 이상이 6.25 이후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온 곳

이 동두천이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1만달러에 해당된다. 그러나 휴전직후인 1953년만 해도 불과 67달러밖에 안됐고, 그것이 2천달러를 넘은 것은 1985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1953년의 미군 상등병(corpral)의 연봉이 840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국민 13명의 소득이었음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미군의 삶에 비해 구차했었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부여대하고 미군이 있는 이곳에 모여들어 살게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 경제 형편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미군으로부터의 수입이 시원치 않자, 미군주둔이 지역사회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심지어 미군 철수론 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를 보니 중국 고사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얘기가 생각난다. 그 얘기인즉 다음과 같다. “중국북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기르던 말이 국경너머로 도망쳤다. 이웃들이 이를 위로하자 그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개의치 않았다. 얼마 후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웃사람들은 다시 노인을 축하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이에 이웃 사람들



이 위로하자 노인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 후 전쟁이 나서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모두 전사하였으나, 노인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애기가 장황한 듯 하지만 인구 8만 정도의 도시에 수 천명의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우 이로운 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자는 말이다.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국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 사람들은 시간약속이 정확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국인들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다. 미국인들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자. 물론 많은 미군병사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다. 그리고 집을 떠나 이국 땅에 온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서 더구나 군사문화에서 뭐 배울 것이 있겠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시간약속, 거짓말 안 하기, 길에서의 공중도덕, 안전규칙 지키기, 준법정신, 환경보호, 철저한 근무태도 등이 그들의 특징이라면 배우자. 세계 최대 최강국이 된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는 국민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왕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로부터 무

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배우자. 하다 못해 요즘 그토록 중시하고 있는 영어라도 원어민인 이들로부터 배우면 어떨까. 그렇게만 된다면 사라센문화와 같은 세계사의 훌륭한 문화도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만나 이루어지듯,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두 생명이 만나서 태어나듯, 동두천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참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문화를 누리는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은 심지어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했던 새옹의 지혜와 “전화위복”을 주장했던 소진의 지혜를 발휘해보자.

동두천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 좋아지는 일 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얘기된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동두천 사람들이 어떻게 mam 먹고 하느냐에 따라 모두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과의 교통은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인 전철과 고속화도로에 의해 해결될 것이고, 빈번한 수재는 배수 펌프 설치 등으로 해결될 것이고, 열악하다고 하는 교육환경도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될 사항들이다. 미군 주둔 문제도 주둔이나 철수냐의 문제는 국가안보 국제정치 또는 세계전략 측면의 문제이고, 어차피 주둔할 일이라면 앞에서 언급된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 노력하



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일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동두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이 전철 건설 등의 서울 등지와의 교통만 편리해 진다면 현재 동두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 동두천의 공동화를 부채질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비전이 있는 “심부름꾼”이 나타나서 모으고 끌어 주고 시민들을 노력을 위한 심부름을 해주면 좋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伯樂)이 있고서야 천리

마가 있듯(世有伯樂 然後千里馬) 시민들이 좋은 심부름꾼을 몰라보면 그마저 사장(死藏)되고 말 것이다. 백락이 없으면 천리마 같은 명마(名馬)도 명마가 아닌 범마(凡馬)로 죽어버리게 되는 이치와 같다. 동두천은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전화위복하는 성인(聖人)처럼 우리 시민구성원 모두의 하기에 달려있다.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 되자 그리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성인이 모두 되어보자.



# 人間性 涵養을 위한

## 家庭教育 · 家庭文化 小考

홍경섭 | 동두천문화원장

### I. 家庭의 機能

우리에게 가정은 무엇인가? 모두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소중한 기본단위임은 두말 할 나위 없는 것이다.

사회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다. 가정은 또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화(行動化)를 사회화(社會化)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소중한 교육 원초 집단이다. 가정은 구성되는 조건부터도 법이나 규범이 아니라 충(忠)·효(孝)·예(禮) 그리고 우애(友愛)를 바탕으로 한 인륜(人倫)으로 엮어진 자연집단(自然集團-Gemeinschaft)이기도 하다. 부부(夫婦)·부모자식 관계는 모두가 인륜과 천륜(天倫)에 의해 맺어진 데서 인위적(人爲的)으로 맺고 끊을 수 없는 천부적(天賦的) 관계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꼭 한가지 남아야 할 것은 한국의 가족제도”라고 말하였다.

또 미래학자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가정은 우주(宇宙)의 중심] 이라고 역설하였다.

토인비가 말한 「한국의가족」, 빌게이츠가 말한 「가정」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뒤흔켜 있는 그런 이익집단(利益集團-Gesellschaft)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理解)가 상존(常存)하는 그런 공간(空間)을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일로 가정을 해체시키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들로 해서 부모 없는 결손가정(缺損家庭-broken home), 또는 교육이 부실한 조개껍질 가정(shell home) 즉, 가정(home) 없는 집(家屋-house)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C. S. 루이스는 「현대의 비극은 구도자(求道者)의 상실(喪失)」이라 했다.

지난 세기만 해도 한번 혼인(婚姻)하면 마음이 안맞아도 이혼(離婚)은 감히 생각도 않는 절대적 가치관(絶對的價值觀-Absolutely Value)이 지배하였다.

현대는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떠돈다.

절대진리(絶對眞理-Absolutely truth)가



없는데 진리를 누가 어디서 찾겠는가?

따지고 보면 인간은 가정이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삶의 기본적인 행동 및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최초의 배우고(學) 익히는(習) 장소이다.

또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생활 속에서 지능(知能-IQ)이 발달하고 정서(情緒-EQ)가 개발되며, 충(忠)·효(孝)·예(禮)의 도덕성(道德性-morality) 그리고 사회성(社會性-sociality)을 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형성의 최고의 「교육의 장(場)」으로 교육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가정 본래의 기능(機能)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성 함양(人間性涵養)을 위한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가정교육 및 가정문화 속에서 찾아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家庭教育

교육의 시조 J.H 페스탈로치는 가정교육은 <뿌리>요, 학교 교육은 <가지>라고 하였다. 인간의 관계중 가정적인 관계가 가장 으뜸가며, 가장 뚜렷한 관계라 하였고, 그러므로 어버이(parents)가 주는 가정(家庭-home)이 인간의 순수한 <자연교육의 터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생의 초기 경험이 그 인간의 성격(character)이나 지적능력(知的能力-Interlectual ability), 그리고 태도(態度, attitude) 및 인간가치관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한 인간의 인성(人性-human nature)이나 품성도야(品性陶冶-deportment lesson)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공경(恭敬)과 자애(慈愛)의 관계이고, 친교(親交)와 우애(友愛)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교육이자 전인교육(全人教育-whole man education)으로서 한마디로 인간교육은 “인간의 존엄성(人間尊嚴性-dignity of man)”에 그 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너와 나」(Ich und 여) 모두의 존엄성을 뜻하기에 도덕적 예의(禮義)가 필요하고, 이 예의는 의(衣)·식(食)·주(住)의 생활에서 시작되고 완성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요람(搖籃)은 가정이고, 그런 까닭에 가정교육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바람직한 부모상(父母象)은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지극한 사랑과 올바른 인간상(人間象)을 기르게 해준다.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을 바로 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보통 말하기를 가정보다 더 나은 학교는 없고, 부모보다 더 영향력이 큰 교사는 없다고 한다. 부모의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어진 어머니가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그 실례로서 한석봉(韓石奉)의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공부를



산사(山寺)에서 10년 간 하도록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나게 하였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10년이 채 못되어서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중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대장부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생을 마다하지 말고 약속대로 10년을 다 채우고 돌아오라고 꾸짖고는 그 날 밤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리움을 참지 못해 집에 돌아온 아들을 되돌려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요즘 어머니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밤중에 돌려보낼 어머니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그 외 맹자(孟子) 어머니의 삼천지교(三遷之敎)며, 포은(圃隱) 어머니의 깨끗한 마음이며, 현모양처의 귀감인 이율곡(李栗谷)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등이 보여준 행동은 모두 좋은 교훈(敎訓)이라 하겠다.

인간에게 윤리(倫理-ethics)가 존재하므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칭하고, 윤리를 숭상하고 예의가 바르기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일러왔다.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효(孝)를 백행지본(百行之本)·만덕지원(萬德之源)으로 삼아 윤리관을 정립하여 가족의 긍지(矜持-pride)를 심어 왔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신이 결여된 자는 인간구실을 할 수 없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사람됨을 가르치고 바른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 훌륭한 가정교

육이요, 후손에 물려줄 더 없이 값진 유산(遺産)이다.

안중근(安重根)의사는 황금백만양 불여 일교자(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라고 했다.

세대(世代)가 바뀌고 시대(時代)가 달라짐에 따라 인간윤리의 지역성이나 양상은 다소 변할지언정 그 본질(本質)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 III. 家庭文化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생활 속에서 터득한 우리의 전통관습(傳統慣習)과 가치기준(價值基準)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 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에는 인간성의 정립에 힘써 백성들 사이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지켜야 할 윤리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학(鶴)이 지니는 고고(孤高)함과 순결(純潔)함을 강조하였듯이 학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도 담고자 노력하였다. 중국계 인류학자 프란시스 L. K 교수가 지적한대로 서양은 개인의 존엄성(尊嚴性-dignity)을 존중(尊重-respect)하는 문화를 가졌고, 동양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졌다고 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서양문화의 침투와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윤리 사상과 관습문화가 급속히 쇠퇴되고 아름다운 논리(論理)와 인간성이 파괴되어갔다.

하여간에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는 긍



정적이고 발전적인 윤리질서의 가정문화를 만들어 갈 때이다.

가정은 나의 뿌리요, 지주(支柱)요, 본산(本山)이라는 인식이 우선 할 때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청소년들은 사랑과 정(情)에 깃든 순진하고 순박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닦아 항상 겸손과 양보와 이해로,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지향(共同善指向)을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사람됨을 가꾸는데 우리 부모들은 정념(情念)이 넘치는 가정문화(home culture)를 이루어 나가도록 선도(先導)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權威 Authority of parents)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견인력(牽引力)이다. 권위 있는 의사 없이는 건강이 위태로워진다. 같은 이치로 아버지의 권위 없는 가정은 윤리 및 위계(位階)질서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일갈할 목청이 없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야단칠 회초리가 없다.

아래위가 없이 난장판이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미처를리히는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 하였고, 일체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를 이렇게 불렀다.

예로부터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라고

하였을 정도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함이 정명론(正命論)의 기본 사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못한 실부(失父)의 사회에 살고 있다. 고로 권위는 믿음이다. 자식에게 아버지는 하나의 종교다. 종교가 파산하는 곳에서 사교(邪教)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명(明)나라 유학자 홍자성(洪自誠)은 채근담(菜根譚)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다. 화력(火力)이 모자라고 단련이 서툴면 후일 세상에 나아가 일을 맡을 때 훌륭한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계속적인 지도가 바른 심성(心性)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워즈워드는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하였으며, 스펜스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모두가 정성과 사랑 속에 쌓여 정서(情緒 Emotion)가 풍만하고 온유(溫柔)하며 후덕(厚德)한 심성(心性)으로 여유롭고 겸손(謙遜)하여 성실(誠實)한 인간성(人間性 humanity)을 겸비한 사람됨(Menschlichkeit)을 위해 가정교육의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권위와 자애 그리고 훈육(訓育)이 조화롭게 배합(配合)되는 가정문화가 창출되어야 하겠다.

#### IV.

가정은 교육목표(教育目標)를 인성교육으로 바꾸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학교도 그래야 하는데 교육정책이 문제다.) 오늘의 폭력·범죄의 주범은 역시 가정교육의 빈곤에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회복이 급선무이다. 가정교육은 곧 아버지의 의무이자 역할로서, J. J 루소는 「아버이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것으로 결코 자녀 교육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후일에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비통해 하는 날이 와도 아무도 위로해 줄 자는 없다」고 역설하였다.

학교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가정교육은 만년대계(萬年大計)다. 사회의 수영장이 아무리 깊고 위험하여도 가정에서 수영기술(水泳技術)을 잘 배운 자녀 청소년들은 결코 빠져 죽지 않는다.

A.링컨은 국력(國力)은 그 나라 국민들의 가정에 달려 있다고 했고, 4천여년간 존속하다 망한 80여 종족은 모두 가정의 타락(墮落)에서 멸망의 단초(斷礎)가 발견되었다는 영국의 인류학자 존·어윈의 보고가 있다.

가정이야말로 혼탁한 사회를 치유(治癒)하고 자정(自淨)시키는 해결의 근원이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현대문명의 고향상실을 지적하면서 사람들

의 심성을 귀향케 하는 길은 오직 도덕과 양심을 지닌 「인간성 회복」에 있다고 역설하였고, A.토인비도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를 통해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가공할만한 인명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닌 서구 사회의 물질문명이 빚어낸 도덕성의 상실에 있다」고 경고함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가치 즉,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모름지기 교육의 본질이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일진데, 그 명제는 어디까지나 도덕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간성(人間性-Humanity), 개성(個性-Personality), 그리고 지성(知性-Mentality)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교육이어야 한다.



# 타자로서의 번역극,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

홍재범

## 1. 들어가는말

한국연극에 있어서 번역극의 절대다수는 서구의 희곡을 무대화한 것이다. 과거 1970년대에는 서양번역극 공연에서 한국배우가 금발의 가발을 쓰고 연기함으로서 타자성에 대한 표층적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서구와의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서구의 희곡텍스트에 대해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번역극은 우리에게 타자이다. 타자적 대상인 외국희곡을 무대화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타자성과 낯설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극복을 요구한다.

관객들에게 정서적 감동 또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번역극 공연의 주요 원인은 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능력의 결여와 맞물려 있다. 단순히 번역된 문장을 무대 위에서 배우의 입을 빌어 음성화 한다고 하여 연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번역극 공연에 있어 공연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는 타자로서 번역극을 인식하고 타자와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외국원작을 해체/재구성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공연 텍스트에 자신들이 이해한 타자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여 관객과 소통하느냐에 있다.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보편성을 매개로 나와 타자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아의 확장과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번역극 공연이 한국연극을, 나아가 한국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 2 타자와 타자의 우리화 : 번역극과 변안극 사이

2001년 올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공연된 연극 중 창작극과 번역극은 대략 3 대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창작극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연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극단목화), <한여름밤의 꿈>(유), 안톤 체홉 페스티벌(진화, 76), 뷔히너의 <보이첵>(사다리),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오늘), 장 주네의 <하녀들> 등의 고전의 반열에 든 텍스트들과



최근에 생산된 텍스트로서 여성성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버자이너 모놀로그>와 여성의 삶을 중심소재로 한 <로젤>, <셜리 발렌타인>, 그리고 미국 중산층 가족의 일상사를 소재로 한 <다이닝 룸>(한양레파터리), <사랑을 주세요>(미연)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번역극의 주류는 역시 서구의 텍스트이다. 예외적으로 한국연극연출가협회가 주관하는 <제3세계 단막극제(4편)>와 국립극장의 <아프리카 연극페스티벌(3편)>이 있을 뿐이다.

외국희곡의 공연은 타자성의 밀도에 의해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즉, 원작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원작의 타자성에 변형을 가하여 우리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다시 원작 그대로 가는 경우와 원작을 해체/재구성하는 경우로 나뉘지고, 후자는 흔히 번안극이라는 단어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원작의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재문맥화하고 형상화는 방식에 따라 현대적 한국화와 전통적 한국화로 세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공연을 포함하여 대개의 경우 외국희곡의 무대화 방식은 번안극보다는 번역극에 치중해 있다. 사실 번안의 공연 방식은 아직까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 '타자의 우리화' 방식은 개별 작품에 따라 원작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하나의 잣대를 내세워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원작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새로운 창작대본에 근접한다.

타자의 현재적 한국화 경향을 대표하는 공연은 학전의 <지하철1호선>(Volker Ludwig원작, 김민기 번안)과 <의형제> 등이다. 오랜 기간 반복공연을 통해 외국희곡을 현대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맥으로 재구성하여 철저히 한국화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한국화의 경우는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오태석 각색)을 들 수 있다. 원형으로서 셰익스피어의 구상이 남아있을 뿐 구체적인 표현방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어법을 추구하고 있다. 학전과 목화가 보여준 우리화의 모범적인 예는 외국희곡의 타자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연극적 환경이 행복하게 만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희곡이 한국화될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타자를 인식하고 감싸안고 넘어서는 것이다.

### 3. 타자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공유 : 번역극 공연의 기본 전제

……<대머리 여가수>를 중심으로



외국희곡의 공연에는 최종적으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때까지 여러가지 의미영역이 중첩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관객과 만나기 전에 연출가와 배우, 스태프 등은 희곡텍스트를 매개로 각자의 인식지평을 공유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배우들은 일반적이고도 막연한 감정상태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배우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사를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내뱉는다면 그 순간 공연은 죽은 것이다.

번역극 공연에 있어서 여러 구성원들이 타자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평에 대해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이하 인용은 김정옥 역)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대머리 여가수>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희곡사와 공연사에 있어서 부조리연극이 한국연극의 주류로서 자리잡은 시기가 없다는 점과 일상적인 한국인에게 <대머리 여가수>의 문법이 전혀 엉뚱한 낯설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친근한 서구사실주의 연극과 달리 부조리연극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가해한 존재이다. 즉, 우리가 서구적 근대성이 펼쳐놓은 그물망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머리 여가수>의 타자성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 텍스트를 공연함에 있어 원작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부조리 연극의 역사적 맥락과 이오네스코의 연극에 대한 견해를 올바르게 파악함은 공연 참가자, 특히 무대 위에서 인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배우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연출가가 생각하고 있는 공연의 초목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공연의 예술성이 보장된다.

### 3.1 희곡텍스트 속에서 부조리연극의 역사적 맥락을 인식해야 한다.

부조리absurd 극은 문자 그대로 부조리한, 조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극이다. 그렇다고 하여 절대적인 의미에서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이때 상대적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주의 연극이다. 브레히트의 서사극도 사실주의 연극에 반대하지만 나름대로의 논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조리극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조리극은 서사극의 논리적 체계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판단하면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본질적으로는 부조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논리성을 심층에 숨긴 채 겉으로는 부조리를 표방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비논리적인 방식의 하나가 동어반복이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치명적



인 동어반복이 부조리극에서는 쉽게 발견된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제 그만 가자 / 고도를 기다려야지 / 아참, 그렇지!”와 같은 대사는 여러가지 상징성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반복되는 대사들이다. <대머리 여가수> 역시 문맥은 틀리지만 반복이란 점에서는 상통한다.

<대머리 여가수>에서 반복의 의미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의미한다. 언어는 고정불변의 사물이 아니다. 모든 물질은 생성, 성장, 소멸하기 마련이다. 즉 모든 것은 흘러 다니면서 변화하는 존재인 것이다. 일상에서 인간은 언어로,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의도는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언어에 대한 불신이다. 나아가 언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그것은 1차대전과 2차대전의 참혹한 핏빛으로 나타났다.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논리의 세계--그 하나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는 중세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중세 천년동안 기독교로 인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근대의 이성은 신을 대신해서 인간을 구제할 수 있으리라는 또 다른 희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헛된 약속에 불과했다. 이오네스코는 제5장에서 메어리의 입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메어리 : 엘리자베스와 도날드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서 제가 말하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또한 도날드도 도날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 드리자면 도날드가 말한 그 어린애는 엘리자베스의 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애들은 전혀 같은 애가 아니에요. 도날드의 딸애는 엘리자베스의 딸애와 마찬가지로 한눈은 회고 한 눈은 빨강지요. 그런데, 도날드의 어린애는 오른쪽 눈이 회고 왼쪽 눈이 빨강습니다. 그와 반대로 엘리자베스의 어린애는 오른쪽 눈이 빨강고 왼쪽 눈이 회답니다! 그러니 도날드의 논리체계는 그럴싸하게 전개되었는데 마침내 이 마지막 장애에 부딪쳐 이론 전체를 부인



하게 된 것입니다.

근대의 이성이 구축한 거대한 논리의 성체가 한갓 어린애의 충혈된 눈으로 은유되어, 그것이 근거가 빈약한 하찮은 사상누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오른쪽 눈이 희고 왼쪽 눈이 빨강다는 것과 오른쪽 눈이 빨강고 왼쪽 눈이 희다는 사실은 반박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이렇듯 허무맹랑한 근거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이유란 이성의 논리 또한 이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모든 사고의 대전제는 우연한 일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자 결국은 도날드와 엘리자베스의 존재 자체, 정체성에 대한 부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즉, 말하자면 신기한 우연의 일치가 결정적인 증거로 생각되었습시다만 도날드와 엘리자베스는 똑같은 애의 부모가 아니고 보니 도날드와 엘리자베스는 도날드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가 도날드라고 믿어도 그녀가 엘리자베스라고 믿어도 소용없습시다. 그가 그 여자를 엘리자베스로 믿고 그 여자가 그를 도날드로 믿어도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애를 써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일일뿐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메어리의 말대로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도날드일까요? 누가 진짜 엘리자베스일까요? 이런 착오를 조장해서 그걸 즐기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지 맙시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게 좋습니다.(몇 발자국 걸어서 문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관중에게 말한다) 저의 정 말 이름은 살록 홈즈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착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 철학의 시작부터 서구인들은 세계를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 부터 중세의 ‘신’, 근대의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 주체, 헤겔의 절대정신, 마르크스의 자본과 노동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화려한 논리의 성찬에 미혹되어 사물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자각은 전쟁의 엄청난 참상을 목도하고 난 뒤에야 겨우 깨닫게 된다.

서구인들은 성스러운 하느님의 품에서 빠져 나와 인간 자신의 이성을 믿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물리학의 지식을 이용하



여 해무기를 만들고, 화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유태인을 대량 살상하는 등, 신을 대신하여 무지몽매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지식의 산물이 인류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악마로 돌변한 것이다. 부조리적인 인식의 탄생은 이러한 서구역사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우리의 역사적 체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공연 참가자들이 <대머리 여가수>를 감싸안고 있는 텍스트 외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물들의 대화는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나 단순한 말장난으로 밖에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 32 공연 텍스트는 이오네스코의 연극에 대한 견해에서 형상화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는 항상 예술가의 자유를 강조하고 극작가에게 무대가 제공하는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여 인생과 꿈의 전 영역을 추호의 거리낌도 없이 탐색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사실주의의 관점에 선 앙드레 말로의 자유극장은 다만 새로운 예측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극장 안에서 금기의 대상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생을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술표현을 살찌게 하고 거기에다 놀라움과 환상과 그리고 폭력마저도 불어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드라마의 본질은 과장 확대에 있다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사실주의 연극이 등장하기 전 모든 지역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연희의 핵심이다. 근대의 이성이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제거해버린 인간의 본원적인 생명력의 영역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오네스코는 <대머리 여가수>를 통해서 상투적인 일상생활에 파묻혀 공허한 내용, 비인간화된 구호와 고정관념으로 꽂 찬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있다. 인물의 대화를 우리 식으로 바꾼다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는 세마디인 “애들은 자나, 밥 먹자, 자자.”라며 매일 반복되지만 아무런 사랑의 교류가 없는 공허한 대화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관계는 진정으로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없다. 이오네스코는 이러한 짧은 순간을 집요하게 쪼개고 반복시켜 자연스럽게 과장되게 만든다. 그 결과 짧은 시간은 양적으로 길게 늘어나 공허하게 되고 관객들은 자신들의 삶 역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들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극도의 과장은 연극에 대한 이오네스코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인 연극이 플롯과 인물의 심리, 사상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해, 그는 연극이란 ‘일련의 의식 상태 또는 국면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성’인데 ‘이것이 차츰 강렬해지고 집약되어 결



국은 서로 얹히는데 끝에 가서 풀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참기 어려운 혼란으로 끝나거나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극은 서사시, 영화, 소설 등이 보여주는 사건의 연쇄에 의한 스토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계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식이 언어의 비틀기이다. 극의 첫머리 무대지시문에서 영국이란 형용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자 결국에는 영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장난으로 끝나고 단지 그 단어의 음, 소리만이 묘한 울림을 연상시키게 된다. 이런 현상은 <대머리 여가수>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연극적 재료, 즉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다.

마틴부인 그렇지만 암소는 우리에게 꼬리를 준대요.

스미스 시골에 있으면 고독하고 조용한 것이 좋단 말이야.

마틴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신데.

위의 대화만 해도 상호교류하는 맥락은 없지만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아래의 발언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한다.

스미스 캣투 캣투 캣투 캣투 캣투

스미스부인 샷치 샷치 샷치 샷치

마틴 목찌 빠, 목찌 빠, 목찌 빠

언어에 대한 불신, 의사소통행위의 무의미함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은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게 된다. 요컨대 이오네스코는 의미의 밀도가 희박한 말들의 반복을 통해 일상생활의 파편들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나열하여, 당대의 서구인들에게 희극적 상황을 통해 비극적 인식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대머리 여가수>의 공연에 있어 앞의 두 가지 사항은 참가자 모두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창조적 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들 중 배우는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내재화 하여 무대 위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야만 한다. 주어진 상황이란 배우가 창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완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또는 제시되는 모든

여건, 상황들로서, 희곡의 줄거리, 희곡의 사실들, 시대,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삶의 조건, 배우들과 연출의 이해도와 추가적 재해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가 무대위에서 올바른 체험을 통한 표현의 바탕이 되고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간의 본원적인 세계를 탐색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낯선 역사에 대한 인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희곡의 공연에 있어 텍스트가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뷔히너의 <보이첵>은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적 징후들에 대한 통찰이, 아더밀러의 <시련>은 기독교적 심성과 마녀사냥의 광포함에 대한 절실한 공감인, 체홉의 인물들은 제정 말기 러시아 지식인과 몰락한 귀족의 정서구조에 대한 이해가 공연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만 한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사람마다 반응하는 양식이 다르듯이 집단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분명히 외국의 텍스트 생산자들이 보여준 방식과는 다를 것이다. 이 다름에 대한 발견과 타자성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모든 번역극 공연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추기 : 본고는 『문학사상』 7월호에 게재된 글에 약간의 수정을 한 것임.

### 홍 재 범 洪在範

1966년 경기도 동두천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재 서울대, 미추연극학교 강사

주요논문

「이효석 소설연구」

「〈창랑정기〉의 내적 형식 연구」

「1930년대 한국 대중비극 연극」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연기용어에 대한 고찰(1)」 등.



# 제 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작품 동두천시 탐동 상여소리

- 일자 : 2001년 9월 22일(토) ~ 23일(일) <2일간>
- 장소 : 광명시 공설운동장



## 탐동마을 상여소리

### 작품해설

동으로 왕방산, 남으로 천보산, 북으로 소요산으로 둘러싸인 두메 산골이나 주변에서 왕의 매장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봉분이 다른 곳에 비해 크며, 윤비의 생부인 윤판서를 운구하였던 상여를 탐동 낭모루(현 낙우) 주고가는 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상여 소리와 달구 율동이 독특하게 형성 발전되어 왔다.

애사를 내일처럼 같이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와 후렴이 있으며 또한 달구는 3캐·5캐·7캐를 다지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마지막 캐에서는 파배기라는 율동으로 땅에 묻은 후에는 이승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음으로 애사를 신명으로 승화시키면서 상제들로 하여금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흥겨운 자진방아타령과 새타령으로 흥을 겸한 파배기 율동은 탐동에서만 지켜온 달구 춤이라 할 수 있다.

※선소리꾼이 가지고 있는 요령이 윤 판서 운구 때 사용한 요령이다.



### 제1과정 : 상여의 행진(혼)

혼백을 모신 교의(交椅)를 선두로 망자의 이름을 새긴 명정(銘旌), 공포(功布)가 그 뒤를 따르고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지은 글로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든 만장(挽章)의 뒤를 따라 상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면 안상제는 짐 정리를 하며 옷가지를 태우면 연기도 상여를 따라간다고 한다.

### 제2과정 : 노제를 지낸 후

#### 제3과정 : 사위 상여 밀 통과

상여가 나가다 한 곳에 머물러 제자리 걸음만 한다. 이때 사위가 절을 하면 사위를 상여 밑으로 밀어넣고 그 위로 상여가 지나가면서 발로 못나가게 사위를 가둔다. 다른 동네에 살면서 딸을 데려간 보복,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양반들을 이 때나마 골려 주자는 의도가 있고, 사위가 망자에게 생전에 잘못된 일을 빌며 극락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을 기원하기도 한다.

#### 제4과정 : 회다지

장지에 도착하여 시에 맞추어 하관하고 만상제로 하여금 첫 삽질을 하고 미리 파놓은 땅에 발로 다지며 방아타령과 새타령을 부르며 회다지를 한다.

#### 제5과정 : 반혼(返魂)

회다지가 끝나고 봉분을 다 만든 다음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상제가 마중을 나와 만상제를 비롯하여 남자 상제와 같이 곡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 발인 후 설치하여 놓은 상청에 교의를 모시며 탈상까지 교의를 이동치 않는다.



## 상여 소리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영결충천 떠나간다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이제기면 언제오리 병중에 그린 황개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짧은 목을 길게 빼고 삼오 심경 밝은 밤에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꼬끼오 올거든 오시려나 어이하야 못오시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뒷동산에 군밤심어 싹이트걸랑 오시려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부뚜막에 횡초심어 움이 트걸랑 오시려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옛날옛적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오시려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술안에서 꿈는개가 커경 짓걸랑 오시려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천하 장사 조폐왕도 민리장성 들러쌓고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아방궁에 노리짓고 장생불사 하디하고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불사약을 구하려다 그도 또한 못되어서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여산황혼 깊은곳에 속절없이 누웠구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말잘하는 소진장도 육국제왕 다달래도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염나왕을 못달래네 속절없이 죽었구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왕개석승 의돈이가 약명몰리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회테편작 재산없어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삼국지 제갈공명 계교없어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한무제 유한숙이 형세 없어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글잘읽는 문산소는 글을 몰리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활잘쏘는 호빈문은 활을 못씩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술잘먹는 이태백은 술이 없어 죽었으며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천하일색 양귀비는 육국왕비 다했어도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염나국 왕비를 못했구나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조로같은 우리인생 기만이 곰곰 생각하니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물꽃에 이슬이요 담불에 나비로다  
어허 어허 어허리 넘치 어허

총지휘 : 조인희(동두천 문화원장)  
고 증 : 윤창노(72세) 김상우(69세)  
연 출 : 이석기(전 시의원)  
지 도 : 이은준 이종철

## 출 연 자

선소리 : 여두용 이은준

상여꾼 : 정일영 윤석진 이기준 이만기 이영기  
송우영 이종규 김민환 이종철 김항구  
여성열 이학훈 김광수 민영권 최호군  
조승환 목태근 이희원 정세빈 이석기  
여운빈 심우암 양근성 노영도

상 제 : 홍훈섭 이한중 김영수  
기 수 : 이종석  
만 장 : 한성규 공대석 정태선 이진수 이재혁  
황영락 김정준 김승희 이정운 김규용  
한지연 송승호 김도현 이종근 김주서  
며느리 : 정대순 강복이 김요례  
딸 : 김용녀 김귀순 이옥규 김영순  
복쟁이 : 전매운 정안순 유복순 전문지 김풍례  
황연자 안산순 김순희



# 양주(동두천)지역 의병 활동가들

박 재 후 | 중앙고등학교 교사

## 1. 의병항쟁

의병항쟁은 일제하의 민족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으로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은 『한국독립운동(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의병이란 민군(民軍)이다. 국가가 위급할 때 즉시 의(義)로써 일어나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從軍)하여 싸우는 자이다”라고 정의하였는데, 한말 을미사변, 을사조약, 정미조약을 계기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1905년 11월 일제가 체결한 을사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인 통감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적 주권이 상실되어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다. 1906년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식민지화 기초작업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재정제도와 헌병경찰제도 확립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특히 헌병경찰은 식민지 정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경기지방에서 항일의병이 본격화된 시기

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이다. 시위대 대장 박승환의 자결이 도화선이 되어 시위대의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어 원주, 홍천, 충주, 강화도 등의 지방에 있는 조선 군대도 무장 해제를 거부하였다. 군대해산을 반대하는 지방진위대 조선 군인들의 반일 봉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8월 9일 진위대 제1대대 강화분견대에서 하사 연기우(延基羽) 등이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특히 서울 북쪽 양주에서는 1908년 3월 박래병(朴來秉)이 이끄는 60~70명의 의병부대가 와공면 등을 근거로 맹활약을 하였고, 그가 전사하자 참모장이던 특무정교 김석하(金錫夏)가 부하를 수습하여 양주, 양평, 영평 등지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1909년 이후에는 양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의병의 활동상황으로는 이은찬이 양주, 포천 등지에서 50여명의 의병을 일으켰고, 윤인순은 양주, 파주에서 20명의 의병과 함께 활약하였으며, 특무정교 정용대(鄭用大)는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들면서 의병활동은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의 의병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소부대로 나누어 분산적인 유격전을 펴거나 필요한 경우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일제에 대응하였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의병장과 부대가 생겨나면서 의병의 대열을 이어나갔다.

## 2양주(동두천)지역 의병 활동가들

### (1) 유재만(柳在萬)

생년월일 : 1882. 10. 28

사망년월일 : 1964. 2. 27

출생지 : 경기 양주군 이담면 안흥리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07년 9월 김연성(金演性) 의진에 참가하여 총검으로 무장한 40여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양주(楊州)·연천(漣川) 등지에서 항전을 벌이다가 일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내란죄로 유형(流刑) 3년을 언도받고 유배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判決文(1908. 10. 27 京城地方裁判所)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36面

### (2) 정용대(鄭用大)

파주 적성 출신이지만 활동지역이 주로 양주지역이었기에 여기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생년월일 : 1882. 2. 28

사망년월일 : 1910.

출생지 : 경기 파주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경기도 적성(積城) 출신이다.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이때 교환된 비밀 각서에 의해 8월 1일 한국군마저 강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군에서 정교를 지낸 정용대는 군대해산 이후 국권을 회복하고자 의거의 기치를 올리고 스스로 창의좌군장(倡義左軍將)을 칭하고 무장한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부하를 이끌고 적과 접전하면서 적성·양주(楊州)·풍덕(豐德)·교하(交河)·통진(通津) 등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한편 인근 일대에서 활약하던 다른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의병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은찬(李殷贊) 의진과의 연합전략이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1908년 2월 27일 이은찬의진과 함께 양주군 석적면(石積面)에서, 그리고 3월 2일 회암면(檜巖面)에서 일본 헌병 및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은찬이 의병운동의 확대를 모



색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길에 용산역에서 일본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다소 전세가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윤인순(尹仁淳) 의진과의 연합 전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6월 8일 부평(富平)군 내면을 습격하였으나 주재 순사 3명 및 수비대 13명의 공격을 받아 의병 4명이 생포되었고, 무기 9정을 빼앗기고 패퇴하였다. 이때 정용대 의진의 타격은 상당히 커서 일군은 이들이 당분간 재거(再擧)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정용대 의진은 적과 적극적인 교전 이외에도 군자금 조달을 풍족히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모색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다.

1908년 4월 23일 부하 이종근(李宗根)의 18명으로 하여금 통진군 대패면(大佩面)의 심진사(沈進士) 집에 가서 동면 27동 동장과 양릉면 28동 동장과 산빈면(山빈面) 24동 동장을 일제히 불려서 총을 사올 비용을 염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5일 후에 대금 1만 5천냥을 거두어 거사 자금에 보태었다. 그리고 4월 24일 대패면에 거주하는 부위 김순좌(金順佐)에게서 군도 1자루, 양릉면 곡촌(谷村) 한(韓) 모에게서 군도 2자루, 교하군 민(閔)판서에 게서 양총 7자루·탄환 9백 발 그리고 고을 사람에게서 군도 4자루를 거두어 전력을 보완하였으며 고을 사람 조운원(趙云遠) 등과 미리 기맥을 통하여 헌병·순사의 동정을

탐지하여 보고케 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사건에 깊은 관계를 가진 이종근은 1908년 10월에 유형 5년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부하 신관수(申寬秀)는 4월 12일 통진군 수곡리(水谷里)의 김화안(金和安)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10원을 조달하였고, 5월 20일경 교하군 문발리(文發里)의 민영도(閔永道)의 집에 들어가 총기 2자루와 탄환 1백 발을 조달하였다.

1909년 3월 15일 신관수·박만안(朴萬安) 외 5명은 풍덕군 사동리(仕洞里) 이장 김연의(金演義)집에 들어가 50원을 모금하여 군자금으로 썼으며, 5월 12일경 풍덕군 남촌리(南村里) 이장 강신규(姜信奎)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그의 창고를 불태워 창고 안의 벼 8섬을 소각하였다. 6월 9일경 경기도 강화군 고도(高島) 해안에서 군자금 조달을 위한 활약을 하였으며, 연안읍 내에 거주하는 최성섭(崔聖燮) 등에게 현미 1백 50부대를 받아 군량미로 썼다. 이상의 사건으로 인하여 신관수는 1908년 7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정용대는 백영현(白永賢)과 김현기(金顯基) 등에게도 군자금 조달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먼저 백영현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12월 20일경 양주군 동면 강동(薑洞)을 거점으로 하고 백석면리(白



石面里)에 거주하는 송범석(宋範錫) 집에 가서 군자금 6천원을, 그리고 광석면리(廣石面里)에 거주하는 이계운(李季雲)의 집에서 5천냥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1909년 6월초에 동지 30~40명과 함께 양주군 대지리(大池里) 변유삼(邊留三)에게 2차례에 걸쳐 3천 냥을 거두었다. 한편 김현기는 백영현과 함께 활약하기도 하면서 1909년 4월에 양주군 백석면 신지리(莘池里)에서 1천 1백냥을 모금하였다. 이상의 일로 체포된 백영현과 김현기는 1909년 8월에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밖에 이학선(李學善)은 1908년 2월부터 정용대의 부하로 활약한 것이 소위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여 유형 5년형을, 그리고 이치옥(李致玉)은 소위 강도·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모두 일제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아 정용대 의진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정용대는 경기도 일대의 의병소탕전을 전개한 일본 토벌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1909년 10월 28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1910년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249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484・

53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505・525・794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별집 1권 28・29・34・35・65・66・98・99・108・109・112・113면  
・매천야록 496・505・516・522면

### (3) 전순만(全淳萬)

생년월일 : 1876.

사망년월일 : 1932.3.25

출생지 : 경기 장단(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철동 거주)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1907~8년경 경기도 양주(楊州)·적성(積城) 등지에서 일군현병소를 습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8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소위 내란죄로 유형(流刑) 5년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判決文(1908. 10. 8 京城地方裁判所)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33面

### (4) 전목기(全木基)

생년월일 : 1880. 10. 11



사망년월일 : 1933. 10. 17

출 생 지 : 경기 양주 이담면 창리

운 동 계 열 : 의병

공 적 내 용 :

일제는 1905년 화폐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더니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 장악한 후 군대마저 강제 해산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어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것과 같았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항쟁하였다. 대한제국군 출신의 해산 군인을 비롯하여 새로이 많은 인사들이 거의하여 의병전쟁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갔다. 또한 일제 뿐 아니라 평소 일제의 정책에 부화뇌동하던 친일관료와 일제에 기생하며 민족적 과제를 외면하던 부일배 역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의병활동 역시 일제와의 직접적인 전투 뿐 아니라 군자금 모집, 친일관료 응징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전목기는 국권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1907년 9월 김연성(金演性) 의진에 입진하여 40여명의 군사들과 함께 양주, 적성(積城) 등지에서대일항쟁을 전개하다가 일군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소위내란으로 유형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36面

## (5) 추삼만(秋三萬)

생 년 월 일 : 1880.

사망년월일 : 1910.

출 생 지 : 경기 양주군 이담면 하봉암리

운 동 계 열 : 의병

공 적 내 용 :

1907년 8월 양주군 일대에서 활동하던 황재호(黃在浩)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동료 의병 20여명과 함께 양주군 '웃사야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재학(李在學) 의병장의 휘하로 옮겨가 30여명의 동료의병과 함께 적성(積城)·삭녕(朔寧)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같은 달 9일에는 삭녕군 남면리(南面里)에 살던 일진회원(一進會員) 김영덕(金永德)과 이강년(李姜寧) 등을 주살 단죄하고 피체되었다.

그 뒤 1909년 12월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소위 강도·고살(故殺)죄 등으로 교수형을 언도받고, 1910년 1월 15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됨으로써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判決文(1910. 1. 15 京城控訴院)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421·514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132~134面

#### (6) 정두환(鄭斗煥)

생년월일 : 1880. 2. 16

사망년월일 : 1943. 4. 9

출생지 : 경기 양주군 이담면 안흥리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1907년 1월 종질(從姪)인 정용대(鄭用大)의 진에 들어가 파주(坡州)·양주(楊州)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각 의병진과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13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에 합세하여 활동하였으며 연기우(延基羽)의 진과 연합하여 일군과 교전하였다고 한다.

그 뒤 1910년 7월경에는 정용대 의병진에 속하여 동료 의병 5명과 함께 양주·적성(積城)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고, 9월에는 홍원유(洪元有)의 부하가 되어 동료 8명과 함께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이다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10년 9월 26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註・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165·166面

#### (7) 정충환(鄭忠煥)

생년월일 : 1888. 4. 19

사망년월일 : 1962. 1. 17

출생지 : 경기 양주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1908년 5월 12일 의병으로 황재호(黃在浩) 휘하 80여명의 동지와 같이 무기를 휴대하고 양주군(楊州郡) 묵은리(默隱里)와 동년 5월 18일에 포천군(抱川郡) 덕둔리(德屯里)에서 군비를 마련하려다가 일본군 토벌대의 습격으로 체포되었다. 1909년 2월 4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동년 4월 5일 대심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74·75면

#### (8) 목자상(睦子商)

생년월일 : 1870. 2. 1

사망년월일 : 1910. 8. 4

출생지 : 경기 양주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1906년 2월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하여



의병이 되어 양주(楊州)·연천(漣川)·포천(抱川) 등지에서 활동하며 8,000여평의 소유농지를 처분하여 의병활동비로 제공하였다.

1907년 8월 황재호(黃在浩) 휘하 80여명의 의병진에 입진하여 양주군 내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동지 오수영(吳壽永)·이주현(李周賢)과 같이 영근면(嶺斤面) 및 이담면(伊淡面)에서 1908년 8월 및 11월에 걸쳐 2회 동안에 군자금 8,400냥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1909년 3월 9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동년 8월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판결문(1909. 3. 9 경성지방법판소)

- 사천목씨세보(七) 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1권 88·89면

#### (9) 김석하(金錫夏)

생년월일 : 미상  
사망년월일 : 1908.  
출생지 : 미상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1907년 8월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의 해산군인으로서 경기도 양주(楊州)·가평(加平)의 의병장 박내병(朴來秉)의 참모로

서 활동하였고 의병장 박내병의 전사후에 그 진용을 영도하여 영평(永平)·양주 등에서 수차례 전승하였으며 1908년 8월경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생내동(生來洞)에서 교전하던 중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註·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470면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86·87면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484·532면

#### (10) 박내병(朴來秉)

생년월일 : 미상  
사망년월일 : 1908. 8.  
출생지 : 미상  
운동계열 : 의병  
공적내용 :

1907년 8월 23일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강제해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켜 부하 30여명과 함께 경기도 음죽(陰竹)·이천(利川)·광주(廣州)·가평(加平)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양주군(楊州郡)에서 일병과 교전하고 동월 횡성(橫城)에서 부하 300여명과 함께 지영기(池永基) 의진과 합세하여 일병과 전투를 폈다. 동년 9월에는 부하 100여명과 함께 양주군·영평군(永平郡)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또 동년 12월 하순경에도 경기도 통진군(通津郡)과 고양군(高陽郡)에서 군자금을 모

집하였다.

그후 1908년 8월 경기도 양주군 초부면(草阜面) 고랑(高浪)에서 일병과 교전하다가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註・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3輯 510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27・36・50・52・61・69・

85・107面

### 3. 의병정신의 계승

우리 역사는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이를 극복・전진시켜온 ‘저항의 역사’였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과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을 당했을 때 백성들은 일치단결하여 저항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한말의 의병전쟁도 단순한 배일 감정에 의한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유구한 민족사적 전통에서 기인된 측면임을 알아야겠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독립정신인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백여년 전 우리고장에서 목숨을 걸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고군분투했던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이 땅을 올바르게 지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위와 같은 훌륭한 조상들의 후손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친일모리배의 후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 모습을 흔히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위에 열거한 인물들 이외에도 많은 의병과 3・1운동 때의 애국지사와 광복군 등이 있습니다. 차후에 시간과 지면이 허락되면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못골 꽃순이 원귀

이 홍 구 | 신흥고등학교 교감

여섯 살 난 둘째 아들 재봉을 죽은지 하루만에 장사 지내고 허탈함에 하루를 보낸 영춘. 왜 하필이면 저수지 그 자리에 아들이 빠져 죽었는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장마가 그친 후 밀린 빨래를 한다며 저수지로 나서는 엄마를 졸레졸레 따라 나선 재봉은 지 엄마가 빨래를 하는 사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놀이감을 찾던 중, 눈앞에 나타난 큰 개구리를 보고 잡고 싶다는 생각에 폴작폴작 뛰는 개구리를 따라 어처구니 없게도 물이 불은 저수지에 뛰어들어 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장사를 치른 다음날부터 영춘은 밤마다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리기 시작하여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린 듯한 무서운 꿈을 꾸고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시퍼런 물과, 무슨 꽃 같은 것, 어지럽게 휘날리는 깃발 같은 것이 보인 것만 생각났다.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생각도 되고 둘째를 잃은 상심도 달랠 겸 한동안 뜸했던 국궁을 꺼내 들고 활터로 향했다. 영춘은 힘도 좋거니와 명중률 또한 최고로 근동에

서는 알아주는 궁사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활을 들고 활터로 갔다. 활을 손에 다시 잡기 시작한 날부터 밤잠을 충분히 잘 수 있었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그러기를 보름. 안개가 제법 시야를 가릴 정도로 긴 어느 날 활터로 향하는 영춘을 따라 나서겠다고 보채는 장남 재필과 함께 활터까지 온 영춘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말과 함께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과녁을 습관적으로 응시하며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직감에 활은 정확히 과녁에 꽂혔다. ‘궁술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없지’ 이런 생각과 함께 몇 번 시위를 당긴 후 옆을 살핀 영춘. 있어야 할 재필이 없었다. 어디 가까운 곳에 있겠지 싶어 계속하여 활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저쪽 과녁에서부터 무언가 날아오는 것 같더니 사라졌다. 다시 활시위를 조준하였는데 또 다시 이상한 물체가 열린 안개 속에 어른거리더니 없어졌다. 어디서 본 듯도 한 물체였다.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활을 든 순간 이번에는 영춘의 바로 눈앞에 물체가 선명히 보였다. 하얀 소복을 입은 꽃순이였다. 깜짝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영춘은 잠시 후 활을 들고 시위



를 있는 힘을 다해 재었다 ‘이 요망한 것 너였구나. 밤마다 꿈에 보인 것도 바로… 내 오늘 다시는 저수지에서 못나오게 요절을 내주마.’ 잔뜩 긴장하며 활에 힘을 주고 있는데 저수지 가운데부터 물보라를 일으키며 영춘이 서 있는 쪽으로 하얀 물체가 무섭게 날아왔다. ‘너로구나’ 생각된 찰나 시위를 놓았다. 시위가 떠난 쪽을 응시하던 영춘은 기겁을 하였다. 활이 날아간 곳에 장남 재필이가 서 있지 않은가? 일은 벌어졌다. 아버지 영춘이 쓴 화살에 맞아 장남 재필이 마저 피워보지 못한 꽃처럼 불귀의 객이 되었다.

줄초상을 치른 후 거의 실성한 채 술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영춘은 저녁을 먹고 저수지로 향했다. 갈대가 우거지고 물가 가운데 깊은 곳에는 한가롭게 물새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다. 입담배를 종이에 말아 성냥을 그어댄 후, 한 입 길게 연기를 내 뿜었다. 두 놈은 가고 이제 갓 태어난 재명이밖에 남지 않았다. 3년전 상여집에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영춘은 모처럼 장날 구경을 간다며 큰 시장에 갔다가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꽃순이에게 줄 자춧빛 땡기와 면경을 사서 전대에 곱게 넣어 허리춤에 차고는 집으로 향하며 선물을 받고 좋아할 꽃순이를 떠 올렸다. 비오는 날을 정말 좋아하는 꽃순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같은 시

각에 찾아와 마누라 영신택이 주는 누룽지를 얻어 먹으며 생글생글 웃는 병어리 꽃순이. 처음 영춘의 눈에 비친 꽃순이는 얼굴은 별로 밍상은 아니었으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영락없는 거지요 미친년이였다. 머리는 항상 춘향 산발 한 모양이요, 겨울철을 제외 하곤 헝크러진 머리에 울긋불긋한 들꽃을 꽂고 있었으며, 곁을 지나치다 보면 몸에서는 자릿내가 진동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남들은 근처에 가기도 겁이 나는 상여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꽃순이. 그러나 한 번 두 번 볼수록 난봉꾼인 영춘의 눈에 비친 꽃순이는 이제 어느덧 하나의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알맞은 키에, 가끔은 반쯤 풀어진 옷고름 사이로 보이는 뽕얇고 풍만한 가슴. 그리고 영춘의 가슴을 설레게한 앵두 같은 병어리 꽃순이의 입술.

얼마 전부터는 밤마다 꽃순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하여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꽃순이의 마음을 사 마음속 욕정을 풀어야만 되겠다 싶어 시장 길에 나선 영춘이. ‘오늘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일을 치르리라. 그간 몇 번 지나치며 일부러 말도 붙여보고 옷소매에 남모르게 먹을 것도 챙겨 가지고 다니며 주곤 하였던 영춘이었다.

“임자, 나 다녀왔오. 꽃순이는 벌써 다녀



왔나?”

“아니! 당신이 꽃순이 걱정을 다 하시네.”

“나는 뭐 그 아이 걱정하면 안되나?”

“한 시각 전에 다녀갔어요. 참 불쌍한 아이예요.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조금 모자라게…쯔쯔쯔…”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춘은 사랑채로 가 전대에 있는 물건을 푼 후 편한 옷으로 갈아 입었다. 저녁 밥상을 물린 후 창 밖을 보니 먹장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후드룩 후드룩 차양을 때리기 시작한다. 꽃순이가 상여집에서 나와 비를 흠뻑 맞으며 이 산 저 논두렁 사이를 마음껏 뛰어놀 것을 생각하며 잠시 옆으로 기대어 누웠다. 온통 머리 속은 꽃순이로 가득 찼다. 한참 후 차양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소리가 잦아진 후 방문을 열어 본 영춘은 언제 비가 왔냐 싶듯이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빼꼼이 비치는 것을 확인한 후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따로 챙겨 집을 나와 상여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방이 제법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저녁 준비에 바쁜 듯 집집 굴뚝마다 하이얀 연기를 곱게 뿜어내고 있었다. 저수지 근처 윗마을 초입에 자리한 상여집으로 가는 영춘의 마음은 웬지 모르게 불안하고 꺼림직했다. 다만 꽃순이에 대한 애욕

이 아니었으면 가 보지도 않을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자 상여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춘은 상여집 안에 있을 꽃순이의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들장지에는 꽃순이 것으로 보이는 저고리가 걸려 있고 닫혀 있는 문틈으로 보니 상여 제구들 사이에 꽃순이가 자고 있는 것이 눈에 어슴푸레 하게 보였다. 소리가 안 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영춘,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사물들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온통 거미줄 투성이요 상여 제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갑자기 ‘꽉’하고 들장지 닫히는 소리에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영춘은 상여 단강에 기대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꽃순이 쪽으로 눈을 돌렸다. 거의 알몸인 채 비에 젖은 치마만 걸친 상태로 자고 있는 꽃순이. 탐스럽게 열린, 속살 고운 천도복숭아 같은 젖무덤이 눈앞에 보이며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 붙은 치마 속 사이로 보이는 하체의 굴곡 있는 허리 밑 선이 영춘의 불기둥을 자극하여 곱게 자고 있는 꽃순이의 몸을 덥치게 하였다.

잠결 엉겁결에 느껴지는 뜨거움과 아픔을 겪은 꽃순이는 몸을 일으키며 어둑속에서 자기의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다. 일을 치른 후의 성취감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허무를 동시에 느끼면서 영춘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꽃순이를 달래기 위해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꺼내 손에 꼭 쥐어 주었다. 영춘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고개 짓을 하는 꽃순이. 영춘과 한 몸이 되어 텅군 후 울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며 영춘이 준 자줏빛 땀방울을 여기저기에 달아보고 하는 모양이었다. 옷을 입기 위해 영춘은 들장지를 밀친다. 참으로 쟁반 같은 둥근 달이 동산마루에 환하게 걸려 있다. 순간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저 달이 오늘밤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생각과 병어리 꽃순이의 앵두 같은 입술이 마음에 걸리자 영춘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난생 처음 받아본 좋은 선물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꽃순이 뒤로 살며시 가 양손으로 있는 힘껏 꽃순이의 목을 죄었다. 앉아서 알몸을 가릴 제 옷가지를 챙기다 말 한마디 못하고 싸늘한 죽임을 당한 꽃순이. 잠시 후 꽃순이의 시신은 새끼줄에 뽕뽕 묶여 돌에 매인 채로 못골 저수지에 던져졌다.

3년전 한 여름밤의 일이 눈앞을 스쳐지나간다. 오늘밤도 그날처럼 달이 탐스럽게 밝다는 생각과 함께 손가락 끝이 뜨겁다 싶어 눈을 아래로 돌리는 영춘. 손가락 사이의 담배가 다 타 들어갔다. 엄지와 중지로 담배를 잡고 저수지를 향해 튕겼다. 불씨를 아직 간직한 담배가 바알간 빛을 발하며 날아간다. 그리고 저수지에 소리 없

이 떨어졌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나 집으로 향하려는데 담배가 떨어진 자리 부근에서 무언가 물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더니 영춘이 있는 곳에서 솟구쳐 올랐다. 온몸이 굵은 새끼줄에 감긴 꽃순이였다. 놀란 마음에 앞도 보지 않고 집으로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대문을 박차고 집안으로 들어온 영춘은 영신댁을 찾았다.

“헉~ 헉~ 임자!? 임자?!”

집안은 불이 다 꺼져 있고 괴이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그러나 영춘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죽은 병어리 꽃순이 혼백의 소리라고, 소리난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상여집임을 깨달은 영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꽃순이 혼백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제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니 용서해주구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두아가가 무슨 죄 있다고 데려갔으며 우리 집안을 풍지 박살 내려 하는 것 같은데, 잘못은 나에게 모두 있으니 죄 많은 이 한 목숨은 데려가 주시고, 이 후 우리 가족 하나 남은 핏덩이는 보살펴 주구려. 흐흐 흑~ 흐흐 흑~”

“이제야 본인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지를 알았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만 집안에 환란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너와의 정분 때문에 나의 한풀이는 이 정도에서 끝낼 것이나 지금 한 약속을 저버리면 너의 집안 모두가 쑥대밭이 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말해보시오, 그대 혼백이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 하리다.”

“저수지에 빠져 죽은지 3년, 온몸이 새끼줄에 뽁뽁 묶여 육신과 혼백이 빠져나오지 못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다. 오늘 밤 안으로 나를 저수지에서 꺼내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 들어주겠느냐?”

“내 응당 그러리다.”

영춘의 말이 끝나자마자 꽃순이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

상여집을 나와 뚝방을 따라 그날 밤을 떠돌리며 꽃순이를 버린 장소를 찾던 영춘. 못가 가장자리에 내려 앉은 달 그림자 속에 희미한 물체가 떠있는 것이 보이었다. 꽃순이의 시신이었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 시신을 꺼낸 후 상여집으로 옮긴 영춘은 꽃순이를 옥죄었던 새끼줄을 푼 다음 밖으로 나와 무덤을 파고는 봉분 없이 곱게 정성껏 묻어 주었다. 그날 밤 악몽 같은 일을 처리한 후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진 영춘의 꿈속에 나타나 ‘비록 자신을 죽인 원수지만 또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영춘이가 고맙다’는 말을 남긴 병어

리 꽃순이는 약속을 지키어 그 이후 다시는 난봉꾼 영춘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로 영춘 집안도 아무 탈 없이 대를 이으며 잘 살아오고 있다 하며, 마을 초입 양지바른 동산에 자리잡은 상여집 옆,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꽃순이의 무덤은 못골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어 꽃순이는 죽어서 명당 중 명당 자리를 잡았다고 전한다.

● 장원(시민백일장 시부문) ●

## 시 월

김 동 순

능선의 높이만큼 깊어가는 계곡  
산  
나무들은 오래된 기억처럼 미래처럼  
서서  
그들의 수심으로 말을 걸어 올 때  
‘그건 너무 아름다운 병’ 이라고 내가 수화로 답했을 때  
나무잎들은 일제히 비늘을 일으키며  
빛났다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말로  
허공에다 <사랑>을 던져 넣었다  
야-아-아  
얼마나 먼 곳까지 날아 갔는지  
숲들의 파동 화르르  
발목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돌팔매질의 선연(鮮妍)한 흔적  
시월이 화려한 울음 운다  
산이 한무더기 꽃으로 핀다  
산이 한무더기 꽃으로 진다.





## 단 풍

김 용 기

단풍잎

단풍잎 하나 속에

하늘, 나, 하나되어

가을 마음 하나 비쳐보니

단풍잎속 작은 점 하나

마음속 점 하나로 박힌다

단풍되어 물들어 오기까지

술한 바람과 이슬 햇살을 기꺼이

안아보았겠지

술한 밤을 잎새 달랑이며 새벽을 기다렸겠지

마음 하나 비춰보니 단풍잎 속에 수많은

점이 보인다

점점이 박힌 점이

인생이요

산이요

물이로다



생명의 태어남이 단풍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랴만

씨내려가는 역사는 비할 바 없네

단풍잎 옆 단풍잎

단풍 옆 단풍

주고 받는 마음속의 인정도 애기도

단풍의 역사, 가을에 부는 바람까지도

온산이 붉게 노랗게 물들어도

온세상이 붉게 노랗게 물들어도

마음까지 붉게 노랗게 물들어도

점 하나는 남기는 법

점 하나 까지 물들으면, “너와 나” 가

하나 되겠지

너 가는 길이

내 가는 길이

그러나 이어지는 길은 끝나지 않는 법

내일은 너의 날, 모래는 나의 날

단풍잎 속의 점 하나는 점점이 되어 이어지겠지.



## 어머니의 길

이 은 영

가고 싶진 않지만 그 길 밖에 없기에 그냥 가야만 하는 길은 이의 마음은 어떨까?  
만약, 인간의 길이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주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길이라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

인간이 올바른 길과 그 길의 발자취에서 좋은 성과를 맺으면 그 길은 세세에 남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입에 오르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후세에 전철이 되어 교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꼭 가야 되는 길을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난 3월 외조모의 임종은 나의 30년 세월의 길을 헛되게 하셨다. 내 어릴적 외조모는 직장에 다니셨던 어머니를 대신해 그 자리를 채워주셨던 분이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사랑 또는 그 이상으로 나의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워주셨고 잠시동안 외조모의 자리가 비워져 있을 때는 사랑하는님을 그리워하듯 외로워했다.

학교 행사에 부모님 참관이 있을 때는 부모님을 대신해 참여해 주셨고 그 당시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외조모의 부모님 역할은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마치는 고2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그분의 발걸음이 뜸뚝뚤뚤 있었다.

외조모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한없이 큰 줄만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안정과 보살핌으로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저 건너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했고, 그 이후 나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 차츰 아련하게 멀어져만 갔다. 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기적이고 바쁜 결혼 생활로 잊혀져 간다고 하기엔 너무나 억울하다고나 해야 될까?

문득, 어제 한 드라마를 보면서 외조모를 생각해야 했다.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주던 많은 가족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서 돌아가신 외조모의 모습을 연상하고,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은 내가 마지막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싶었다.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 나는 사랑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을 뒤로 버려둔 채 이렇게 '인생무상'을 느끼며 외조모를 생각하고 있는가?

외조모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슬픔을 드라마를 보면서 대신해야 했고 외조모



살아 생전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아픔을 눈물로 참회해야 했다.

지금은 내 아들의 외조모가 되어 버린 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어머니도 외조모의 길과 똑같은 길을 가실거라 생각하니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아스한 슬픔이 솟아오른다.



## 추억

김 한 하

가을걷이가 끝난 후 들녘을 보면 지금도 마냥 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농사라는 게 힘들긴 하지만 요즘은 참 많이 편해졌다.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벼 베기에서 탈곡까지 한번에 다 해결되었지만 나 어렸을 적만 해도 가을걷이는 제일 큰 일이었다. 벼 베기에서 탈곡까지 한가지 한가지 사람 손으로 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이었다. 그 힘들고 바쁜 와중에 어린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겨우 새참에 물주 전자나 들어다 주는 일 정도였지만 왜 그렇게도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른다. 텅빈 들녘을 보며 일년 농사 무사히 끝냈다는 어른들의 마음을 그 나이에 알았을리는 없었을테지만 가을의 가슴 설레임은 그때부터였다고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봄부터 겨울까지 바쁘고 힘들게 평생을 그렇게 농사밖에 모르고 사셨다. 들녘은 풍요로 가득차 있지만 그 만족감과는 다르게 가슴에 바람이 든 것처럼 쓰리듯 아픔을 느끼는 건 이번 가을의 추수가 농사의 끝이 아니라 내년 봄 농사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에게 휴식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다. 항상 뭔가 일을 찾아 하시면서 틈틈이 시간 내서 나와 놀아주시고 기억 속에 아버지는 게으름이 없는 분이셨다. 지금은 그림자만 하지만 어릴 적 들던 아버지의 시조 가락은 그때 왜 그렇게 청송맞고 듣기 싫었는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소리가 지금은 너무 그리운 건 역시 나이 탓일까? 동네 사람들이 행여 볼까 새벽 이슬도 깨기전 논두렁을 어린 날 등에 업고 시조 읊으며 걸으시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자리 엄마의 자리로 있기까지 많은 기쁨과 교훈과 손으로 꼽지 못할만큼 많은 행복을 주신 아버지. 시골에 한번 다녀올 때마다 아버지가 자꾸만 작아지신다. 작아지는 아버지 모습에 가슴이 아프지만 더욱 가슴이 아픈건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아니다. 그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눠주시면 아버지처럼 난 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다. 봄이면 물 가득한 넓디 넓은 논이며, 여름이면 푸르디 푸른 들녘, 가을이면 가을의 풍요로움과 텅빈 들녘의 한가한 아름다움을 난 내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다. 아니 그 잠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같이 할 수 있었던 아버지와 추억을 난 내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다. 아버지를 추억하며 행복해 하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 심 사 평

나 호 열 | 시인 · 경희대학교수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백일장의 심사를 보게 되었다. 우선 양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풍성해지고 글감을 다루는 솜씨도 향상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넉넉해진다.

짧은 시간에 주어진 글감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형상화된 내용이 작자의 체험과 잘 어울려 작품으로서의 감동을 전달한다는 것은 평소 글 쓰는 일 등의 사색과 그 사색의 깊이와 너비를 가늠케 해준다.

이번 심사에 있어서 눈여겨 본 사항들은 주제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구성력이었고, 그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재의 참신성 등을 심사의 항목에 넣어 보았다.

시나 산문이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들은 그 수준들이 근접해 있어서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웠으며, 바로 이 점은 눈에 띄만한 수작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와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특히 산문부에서는 산문이 주는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부족하고 문장력의 빈곤함이 눈에 띄었으나, 이는 amateur들이 갖는 풋풋한 감성의 발로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끝으로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발전되어 동두천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제 2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과학) 축제

임 완 택 | 사회단체 어수회 사무국장

### I. 청소년 별자리(과학) 축제의 태동

현재의 동두천 역은 15, 6년 전에는 어수동 역이라 불리웠다. 조선을 창업하신 태조대 왕께서 왕좌에서 물러나 함흥 이궁(離宮)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어가를 멈추고 갈증을 풀기 위해 길가 우물에서 냉수를 떠오게 하였다. 시종이 떠다 진상한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난 후 태조의 울적한 기분은 얼마간 후련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임금님께 냉수를 진상하게 된 벽촌 백성에게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물을 어수정이라 하였고 그것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사회단체 어수회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로 동두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애향인으로 구성되어 동두천시 사회단체 제1호로 등록을 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로 교육과 환경에 봉사를 하고 있다.

IMF가 시작되기 전인 5년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과학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과학문화 축제인 청소년 별자리(과학)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올해엔 제2회 축제를 전회원의 역량을 모아 개최하였다.

별자리(과학)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과학과 천문에 해박한 박사급 자문위원들과의 협의,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과학 축제에 참관하여 행사 운영·내용 파악 등 행사를 개최하는 것 보다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힘을 쏟아야만 했다. 그러한 회원들의 애향심과 정열로 별자리(과학) 축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주와 과학에 대한 커다란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II. 별자리(과학) 축제의 내용

#### 1. 축제목적은

- 1)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전인교육 실시
- 2) 청소년들에게 과학활동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과학적 사고력 함양





3)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심성 함양을 통한 애향심 고취

4)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의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 정신 함양

## 2. 축제의 방침은 이렇게

1) 질서가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영한다.

2) 청소년들이 흥미있게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살려 운영한다.

3) 어수회 및 유관 단체들의 협조로 전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한다.

4) 모든 행사는 과학과 관련된 과학 탐구심을 함양하는 행사로 운영한다.

## 3. 주관, 주최 및 후원은?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연초에 단체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절성 등 전 부문에 걸친 심사를 하여 사업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 받아 별자리(과학) 축제를 준비하기에, 주최는 경기도와 동두천시 그리고 학생교육에 대한 활동이기에 동두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하여 행사의 모든 것을 운영한다.

지난 1회 행사부터 함께 노력하는 천문동호회 별만세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고, 퓨전하비 동두천 지점장님과 페러글라이딩 동호회 그리고 차량 통제를 지원하여 주신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가 큰 힘이 되었다.

### 1) 제1회 동두천청소년별자리(과학) 축제는

- 2000년 11월 3일(토)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체 사진전, 모형항공기 전시전, 과학탐구코너 10개소, 부메랑 날리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물로켓 만들기 대회와 태양 흑점 관찰, 무선비행 시범, 페러글라이딩 시범 등 낮 행사에 체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 개회식과 연계되어 실시한 조경철 박사의 천체 강연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별자리 이야기와 천체 관측(구름이 많은 관계로 구름 사이로 달과 행성을 관찰)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주를 향한 탐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 2) 제2회 동두천청소년별자리(과학) 축제는

- 2001년 10월 20일(토)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동두천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 시 개최된 종목 외에 나비 표본전,



열기구 시승 행사와 물로켓만들기대회 참가자를 지난 행사시 보다 대폭 늘려 140여 가족이 참여하였다.

- 또한 개회식후 화약 로켓발사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당일 행사 계획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시간계획	활동내용	비고
식전행사	13:00~16:30	1) 천체사진, 나비표본, 무선비행기전시(운동장) 2) 열기구 탐구 및 시승 3) 태양 흑점 관찰 4) 물로켓 발사대회(선착순 100가족→143가족 참여) 5) 부메랑 날리기 대회(인원제한 없음) 6) 모형비행기 날리기 대회(인원제한 없음) 7) 탐구과학실험 코너(10개소) 8) 무선비행(2팀) 9) 페리글라이딩 시범(10명)	
개회식	16:30~17:00	• 개회사(내빈소개)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대회사 • 축사 • 대회설명 • 폐회사 → 화약 로켓 발사	
본행사	17:30~22:00	1) 천체 강연 (이태영 우리나라 최초의 소행성 '통일'발견자) 2) 별자리 이야기 (박석재 박사) 3) 별관측 설명 4) 천체관측(육안, 망원경, 천체망원경, 아스트로카) 5) OX퀴즈 대회 6) 폐회식	



#### 4) 행사준비는?

제1회 동두천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 반성 자료를 토대로 협의와 계획을 10여회 이상 가졌고, 어수회 전체를 기획 총괄·재무·섭외·홍보·진행팀으로 편성하여 각 팀별로 협의를 거쳐 행사 준비를 하였고, 준비위원회 조직표는 다음과 같았다.

명예대회장 : 방제환·박지영  
대 회 장 : 임상오  
준비위원장 : 박형덕

부위원장 : 윤수정, 이종만

사무국장 : 임완택  
차 장 : 임준성

총 무	재 무	홍 보	진 행	섭 외	의 전
임완택 임준성 김석훈	김현모 최충균 오문호	구창룡, 정성문 이왕상, 이 경 안희철	임완택 윤수정	박형덕, 김기수, 김세중 권혁수, 조 용 현	

1조 운송팀	2조 운반팀	3조 입장 관리팀	4조 의전팀	5조 통제팀	6조 과학용품 지원팀
송상곤	정성문	이민수	박형덕	전세중	김문술
이승상 김석훈	조용현 김익근 이성호 김우찬 안희철	김운경 오세중 김우찬	김기수 김세중 구창룡 권혁수 조용현	김정구 조용진 정경선 지영식 안희철	김석훈

- ▷부메랑 대회 운영 - 이 경, 김익근, 이성호
- ▷종이비행기 운영 - 김흥래, 고동원, 최광욱
- ▷물로켓 지원
  - 이종만, 목현균, 원용식, 심건택, 이인근, 김희연, 송은영, 금세영, 김용구
- ▷과학팀 - 이왕상, 오문호
- ▷열기구팀 - 김현모, 이승상
- ▷사진전시회 - 정성문
- ▷나비전시회 - 송상곤
- ▷모형비행기 전시회 - 김문술, 김석훈

### Ⅲ. 별자리(과학) 축제의 결과

1.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전인 교육의 실시로 많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
2.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찰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 함양과 생활 속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고취 및 우주에 대한 원대한 꿈 성취
3. 청소년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자율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건전한 심성 함양을 통한 애향심 고취
4.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의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 정신 함양
5. 직접 체험하는 대회 운영(종이비행기 공작 및 날리기 대회, 열기구 시승, 부메랑 날리기 대회, 탐구과학 코너, 별관측, OX퀴즈대회)으로 참여 정신 함양
6.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무선비행기 조정 시범과 패러글라이딩 시범으로 청소년들의 흥미와 축제 분위기 조성
7. 경기북부지역 최초의 민간 주도의 별자리(과학) 축제 개최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의미 있는 축제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 유발
8. 작년 행사에 이어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천여명이 더 참여한 청소년, 학부모 3,000여명이 참가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경기북부지역의 청소년 과학 축제

### Ⅳ. 별자리(과학) 축제의 발전방향

제1회 행사보다 많은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 학부모 3,000여명이 참여한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과학) 축제는 명실공히 우리지역의 청소년 과학 문화의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며, 민간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 과학 축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단체 어수회에서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시로 찾아가는 천체 관측 행사를 갖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는 어렵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겠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임상오 대회장과 모든 어수회원 그리고 후원하여 주신 시장님, 교육장님과 관계관 및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 이담 농악



동두천이담농악보존회

# 이담농악

## 유 레

**이담** (동두천의 고명)농악은 경기, 충청 판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해방 전 후부터 행해졌던 경기북부지역의 행단농악(현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농악(현 동두천시 송내동)과 안흥농악(현 동두천시 동안동)에서 발굴, 재현시킨 것이다.

당시 행단농악에서 활동하였던 어윤희(동두천시 지행동)씨와 송내농악벽구로 활동하였던 장병우(동두천시 불현동), 어윤성(동두천시 송내동), 이윤수(동두천시 송내동)씨와 고증에 의하면 4월 초파일부터 단오절까지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천년 역사를 가진 은행나무 밑에서 마을 농사일을 위한 품앗이 주민 대동굿을 벌여 마을의 안녕과 액운을 떨쳐내고 화합과 단합을 위한 연회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당시 호미걸이는 가장 큰 마을의 행사였으며, 이 날은 모든 마을마다 농악대가 농악을 치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위에 거명한 마을 농악이 가장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담농악대는 인근 지방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여러곳에 공연을 위해 출타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공연은 “대한민국 농협 창설 기념일 창덕궁 공연”을 들고 있다. 이 공연 상황을 무비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기록이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 이담농악 기능보유자



윤길복 (호적)  
이인승 (상쇠, 작고)  
조윤제 (상쇠, 작고)  
정은종 (부쇠)  
어민우 (장고)  
이항구 (장고)  
이윤희 (벽구)  
장병우 (상벽구)  
어윤성 (벽구)  
어윤수 (벽구)  
목영철 (벽구)  
목영현 (벽구)  
어창우 (장고, 작고)  
목우상 (벽구)  
(현재 파악중인 기능보유자 임)



# 이담농악보존회

<b>태평소</b>	김홍래
<b>기箏</b>	함병옥, 이종현, 전희동, 최용락, 장호순, 신혜란, 허 한, 김병옥, 이현구, 이성덕
<b>쇠</b>	김복만, 박지원, 고양옥, 한소희
<b>징</b>	김영천, 맹두형
<b>장고</b>	김경수, 이은정, 안영자, 한아름, 김연숙, 박혜영
<b>북</b>	이윤구, 심결순, 최명훈, 김정인, 김선화, 홍선미, 유지희
<b>벽구</b>	길기옥, 송귀철, 임동현, 박은수, 김지숙, 한명진, 정승미, 홍미진
<b>무등</b>	박기선, 이상미, 이진숙, 김은아, 곽애란, 양애희, 이예슬, 김영선
<b>잡색</b>	천재원, 김용려, 이옥주, 강봉이, 진문자, 전매운, 정연이, 김영순, 김봉순, 김순희, 김명남, 여경희, 한홍섭, 김복순, 편은경, 김미나



## 연혁



- 1989년 이담농악보존회 창단
- 1990년 10월 소요문화제 행사 참가
- 1994년 10월 미2사단 축제 참가
- 1995년 5월 미2사단 아시아 태평양의 달 행사
- 10월 소요문화제 행사 참가
- 5월 이담농악 정기발표회
- 1996년 5월 이담농악 정기발표회
- 10월 수원화홍문화제 행사 참가
- 10월 경마축제 참가
- 1997년 5월 이담농악 정기발표회
- 10월 소요문화제 참가
- 5월 이담농악 정기발표회
- 1998년 4월 경기도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식 시연
- 5월 무형문화재 70호 양주 소놀이굿 정기공연 초청공연
- 5월 전주대사습 장려상 수상
- 9월 과천 세계 마당극 큰잔치 행사 참가
- 11월 전국농악 경연대회 우수상
- 1999년 5월 이담농악 정기발표회
- 6월 전주대사습 장려상 수상
- 9월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대상 수상
- 2000년 5월 전주대사습 차하상 수상

## 「환경은 생명이다」

## 「21세기, 이제는 환경입니다.」

위 두 명제는 우리 인간사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짧게, 강하게 강조한 말이다. 지난 1999년 11월 19일에 30명의 회원으로 창립을 하여 만3년을 지역사회내 열악한 환경적 조건들을 상대로 미력이나마 변화와 시민환경인식의 높이를 일구어보려고 우리 환경련 회원들은 무던이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 폭우로 인한 산사태복구 및 향후대책
- 특정폐기물방치(피혁슬러치) 대책촉구
- 소요동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세부계획논의
- SBS방송사등 3개언론 현장탐방인터뷰
- 동두천천 제방공사 대책논의
- 가고싶은 신천만들기 대청소 실시
- 환경캠페인, 쓰레기시민실천단운영, 주부환경교실, 환경문화경시대회
- 난개발 최소화 요구서제출, 자연생태기행, 녹지공원조성요구 등등

이제 동두천환경련은 후원회원 90여명, 운영위원 60여명으로 성장한 NGO로, 시민단체로 자리잡았다.

환경보전의 가장 최전선은 누가 뭐라해도 가정이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음식찌꺼기는 적게, 재활용품은 분리, 에너지아껴쓰기 등 기본만 지켜준다면 국가적으로 연간 10조원이 넘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

자연은 가꿀수록 되돌려준다.

봄의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희망을  
하얗게 부서져 흘러내리는 시원한 여름계곡  
아름다운 형형색색 가을날 단풍숲에 장관이여  
고즈넉이 차곡 덮여가는 시골길 느티나무  
눈썹인 초기집 눈으로 그려보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면  
되돌리지 못할 한번의 실책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는 이를 파괴한다.

환경운동은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객체로 보고  
작금현실의 가슴아픈 문제점을 지적, 예방,  
대안제시, 실천하는 일이다.

동두천시는 살고있는 시민이 주인이다.

방관, 시기 무관심에서 작은 실천, 참여가  
환경운동의 시작이다.



2001. 10. 28 남양주시 선진환경시설 및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돌아보는  
가을 생태기행 모습

동두천환경운동연합사무국(보건소앞 손두표법무사 2층) 864-4492. 011-311-1446



## 또 다시 그 일이....

이 현 정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1)

어느 한순간 우리 가족의 희망과 용기를 앗아가는 일이 있었다. 그건 1999년 여름의 일.

나는 정말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약속이라도 한듯이 물은 조금씩 개울을 넘어 차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방에서는 조금씩 물이 찼다. 순식간에 물은 허리까지 찼다.

나와 동생은 먼저 2층집으로 대피했다. 그래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벼락과 함께 더 심하게 내렸다. 나는 너무 불안했다. 무서워서 계속 엄마랑 아빠만 찾았다. 한참 뒤 엄마랑 아빠도 2층으로 올라오셨다. 조금 안심이 됐다. 엄마를 보자마자 집 팬츠나고 물었다. 엄마는 걱정 말라고 나를 안심 시키셨다. 옆에 계신 아빠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담배만 피워 대셨다. 너무 속상했다. 나는 기도했다. 비가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늦은 오전이 돼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맑은 하늘을 좋아하던 나였지만 그날 따라 맑은 하늘이 너무 알미웠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

섰다. 우리 집 같지 않던 그 모습에 나는 한동안 넋을 잃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자기 자리를 다 벗어나 뒤집어져 있고, 우리는 다 깨져 있고, 옷은 물과 함께 밀려 들어온 진흙뻘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방이 가장 걱정되어서 먼저 찾았다. 보자마자 내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미술 도구와 가구들... 또 편지와 추억이 담긴 앨범이 물에 불어서 다신 볼 수도 쓸 수도 없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하나라도 건지려고 깨끗한 물에 씻었다. 씻고 또 씻어도 진흙뻘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더 망가지고 있었다. 나는 정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싱크대가 불어서 문짝이 맞지도 않고 나무로 된 가구는 모조리 버릴 수 밖에 없었다. 풍족하지 않은 우리 집이었기에 쓴 벽지와 장판으로 도배만 하고 몸만 들어와서 살았다.

그때부터 우리집은 텅텅 비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장롱 하나없이 살고 있다.

꼭 필요한 작은 서랍과 TV, 냉장고는 모

두 중고를 사서 쓴다. 그러나 그 해 뿐만  
이 아니었다. 3년 내내 연속이었다. 이젠  
익숙해졌다. 여름만 되면 짐 챙겨서 알아  
서 2층으로 올라간다.

나는 우리 동네만 특히 매년 수해가 난  
것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집 앞에는 커다  
란 수문이 하나 있다. 그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매년 이 정도로 큰 피해  
는 안 입었을 텐데...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수문이라서 제 노  
릇을 못한 수문이 나를 더 화나게 한다.  
나는 그래서 사계절 가운데 여름이 너무  
싫다. 매년 나에게 나쁜 기억만 만들어 주  
고 우리 가족의 희망과 용기를 빼앗아간  
여름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여름이...

자연재해가 없는 곳, 그런 곳에 살고 싶  
다. 우리 동네가 그런 곳이 될 순 없는 걸  
까? 물론 해마다 오는 홍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텐데...  
홍수가 올 조짐을 보이기 전부터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이 빠질 곳은 충분  
한 지 점검을 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  
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 “사후 약방  
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한 속  
담은 아마 나와 같은 재해를 겪어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내  
일의 재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온다. 벌써부터 불  
안하다.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피해와 나쁜 기억이 생기지 않았  
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 용두암에서

이 명 진 | 신흥중학교 교사

눈이 부신 날도 아니건만  
눈을 뜰 수 없어  
바라본 바다는  
하늘인지 바다인지

현무암 검은 바윗돌  
바닷물에 깊이 박혀  
천년의 그리움이  
타다 남은 살덩어리가

부우연 바다 끝자락에  
말없이 누워 있는 게  
끝까지 밀려오다 전설이 된  
너이러니 나이러니...

제주 바다  
그곳에 조용히  
나를 내려 놓았노라  
나를 내려 놓았노라.



## 그리움 1

이 명 진 | 신홍중학교 교사

시골집 댕동에서 텅구는 프로스펙스 샌들  
엄마 손목에 대신 채워져 있는 금장 시계  
환갑 때 해드렸던 색 고운 한복  
딸들이 철마다 사드렸던 셔츠들  
안경너머로 보셨던 돋보기 안경  
겨우내 입으시던 거위털 파카  
손주들 초콜릿 사주시던 까만 동전 지갑  
허리춤에 차고 다니시던 칼 꾸러미  
세탁소에서 수선한 지 얼마 안 된 바지  
이 모든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요





## 그리움 2

이 명 진 | 신흥중학교 교사

아빠가 꼭 살아계신 것 같다.  
단지 이 착각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은  
신나던 장날 구경도 그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털복숭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강냉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트로트 소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낚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찹외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시장 커피에만 눈이 멈춘다.  
시끌벅적 장터에서 조용히 울며 걷는  
내 어깨가 자꾸만 눕려 온다.  
고개를 떨구고 시장 한복판을 곧바로 걷는다.  
약자한 시장 골목 사람들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 그리움 3

이 명 진 | 신흥중학교 교사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니.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저기 참견하실테니  
하나님, 졸리시겠어요  
매일 천국문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턱대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오남매 엄마랑 거기 갈 때까지







● 대상 ●

신 희 정 | 생연초등학교 (3)

● 최우수 ●

조 성 민 | 보산초등학교 (4)



● 최우수 ●

안 병 훈 | 동보초등학교 (1)

● 최우수 ●

홍 은 실 | 동두천초등학교 (5)





● 대상 ●

임 다 운 | 신흥중학교 (2)

● 대상 ●

남 숙 현 | 보영종합고등학교 (3)



● 최우수 ●

송 미사엘 | 동두천여자중학교 (2)

● 최우수 ●

조 가 영 |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3)





## 심 사 평

이 소 림 | 동두천 문인협회

작품 응모 수는 예년과 비슷한듯 하였으나 전반적인 작품 수준은 예년만 못한것 같다. 예년엔 시제(詩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작품을 쓰게 하였으나, 금년엔 지정된 제목을 주어 작품을 쓰도록 한 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 1. 고등부 심사평

산문은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제목이 가진 주제를 풀어보려 애썼으나 모두들 상식적인 이야기로 서술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관찰하지 못한 것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 평소 창의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면 그걸 해낼 수 있다. 더러 그런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시도한 작품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주어진 제목과는 관련이 없어 탈락시켰다.

운문도 흉작이다. 몇귀절 평평한 감상적인 시귀를 늘어놓다만 것들이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산문도, 운문도 대상(大賞)에 해당하는 작품을 내지 못했다.

### 2. 중등부 심사평

중등부 산문에는 제법 관찰력도 있고 대담한 상상력과 기발한 착상으로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있었다. 그래서 대상과 차상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운문에서는 역시 눈에 띄는 작품이 없었다.

### 3. 초등부 심사평

동심이 깃든 작품들은 언제 읽어 보아도 즐겁다. 더러 너무 어른스런 생각이 엿보이는 작품이 있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으나, 하여튼 올해도 제법 많은 초등학생들이 백일장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글짓는 재미를 키워주기 위해 산문에서 입선 작품수를 좀 늘렸다.

## 아름다운 삶

백 정 아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보다 새로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고3이라는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고3 생활을 의미있고 뜻있게 보낸다면 어른이 되서 그만큼의 결과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정해진 틀에 갇혀 매일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틀에 갇혀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각각 생김생김이 다르듯이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제각기 다른 것이다.

당장 우리의 생활에서 직면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을 때 벌써 자신의 꿈을 깨달은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며 그 부문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 그것은 정해진 틀을 벗어 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벌써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처음 시작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지 모르지

만 그 결과는 보통의 과정을 지난 아이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이 두 부류를 모두 걱정하는 편이다. 나의 경우 모든 고3이 겪는 모든 고3이 겪는 모든 과정을 지나고 있으나 아직 그 결과와 성과는 미약하고 밝지 않다.

아직까지 나의 미래와 삶이 뚜렷하지 못한 나는 정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대로 따라갈 뿐이다.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가 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보이는가에 달려 있는것 같다. 그리고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자신이 만족할 만큼 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노력과 과정만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먼 훗날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생각하며 우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꿈꿔 본다. 이것이 꿈과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결과를 위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것만이 우리를 자신이 바라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끝은 언제나 맑고 화창할 것이다.



#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 지 은 | 보영여자고등학교 (2)

작고 노란 민들레가 있습니다. 연약하면서도 바람에 금방이라도 꺾길 것만 같은 힘없는 민들레 한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르스름한 잎을 지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푸르스름을 지녔고 가지는 넓게 뻗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웅장하고도 자태로워 보였습니다. 나약하기만 하고 힘없는 작은 민들레 한송이가 크고 웅장한 나무 한그루 아래서 맥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라가지 않을까 이 거대해 보이는 나무가 덮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 하루도 눈물과 두려움이 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눈물에 지쳐있는 민들레는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를 두려움이란 것으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민들레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여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민들레를 항상 걱정하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는 나무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어느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엔 천둥이 쳤습니다. 천둥소리는 마치 민들레를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검게 뒤덮힌 하늘에서는 광음도 들려왔습니다. 민들레는 두려워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는

울고있는 민들레를 비바람속에서 감싸안아 주었습니다. 민들레는 거센 비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는 나무에게 너무도 미안해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해서 더욱 두려움으로 경계만 해 왔던 나무가 사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는 항상 민들레가 알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항상 연약한 민들레를 감싸안아 주었고 뜨거운 햇살과 무섭게 심술을 부리는 바람에게서 보호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 하나로 경계만 해왔던 민들레는 이제는 나무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지칠때나 힘들때 항상 나무는 연약하고 힘없는 민들레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힘들어 지칠때나 아플때에는 민들레의 이야기로 마음을 달래 주었고, 이제는 서로간에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외롭던 큰나무와 연약한 민들레에게선 더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철없이 무서움을 갖고만 있던 민들레와 민들레의 약한 모습마저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나무에게서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약하고 힘없는 민들레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저의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연약한 저를 보호해주시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라나면서 받을 수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때 항상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부모님께서서는 저의 버팀목이시자 저를 버티게 하는 존재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한때 제가 잘 되라는 부모님의 심정도 모르고 항상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부모님의 모든 말씀들이 잔소리로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터없이 넓은 세상에서 저는 부모님 당신들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했던 민들레 같기만 했던 제가 저에게 더없이 커보이셨던 웅장한 나무같았던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지쳐가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연약했던 큰딸이 받아만 왔던 이 큰 사랑을 가지고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당신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준다는 것은 어느것보다 값진 보석보다 더없이 빛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이 많을수록 삶은 더욱 살아갈 맛이 날듯 합니다.

이런 서로간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삶,

즉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바로 저의 부모님 당신들께 배웠습니다. 항상 수줍게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제가 이 글을 통해 밝힙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당신들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당신들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알게 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신 다 미 |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 (3)

나는 지금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1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어리기만 한 내가 벌써 졸업을 준비해야 한다니 믿겨 지지 않는다. 많은 것이 부족한 나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붙어서 그것의 잎들만 잡아먹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는 순간 비로소 그 나비는 보다 더 넓은 진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금의 바로 내가 그 날개를 펼치는 순간에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세상을 향해 눈을 떴고, 돌이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향해 꿈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 끝 드디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고3이다. 이 시절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시기이지만 직접 겪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때일 것이다. 이제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고3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그 중의 한 사람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몇 년 후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지금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이 지내왔던 나의 친구들도 그때쯤이면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지금 이 순간이 무척 그리울 것이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어릴 적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들의 세상은 자유, 그 자체가 좋을 것만 같았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른들만을 위한 것들 뿐이었는데... 막상 그 문 앞에 오니 모든 게 두려워졌다. 내가 과연 거기에 가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이 앞선다.

뉴스와 신문을 보며 지금의 사회를 본다.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 하지만 그 속으로 가야 한다.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헤쳐가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은 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 나도 그 사람들 처럼 버틸 것이다.

나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 12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은 자랐고 꿈도 조금씩 커져왔다. 나의 꿈, 결국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

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다.

나는 왜 지금의 길을 택했는가? 어릴 적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히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매일 바뀌는 꿈들, 실현 가능성 없는 허황된 꿈만을 꾸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것저것 채보고 따져가며 자신의 꿈을 사회의 기준에 맞춰간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고 있는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사람은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라고들 한다. 나도 지금의 내 모습에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라는 곳은 어떨까?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한 것 만큼의 그런 곳일까? 지금의 나는 많이 부족하다. 사회에 나가서 이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는 역시 나 하기에 달려있는 것일 것이다. 어쩌면 그 곳이 내가 생각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지도 모른다.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아마 그곳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감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많이 모자라고 나약하기만 한 지금의 나이지만, 세상에 첫발을 디뎠을 때 자랑스런 나였으면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아름다운 삶, 어머니의 사랑

진 성 미 | 동두천고등학교 (2)

“콜록, 콜록”

한밤중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저렇게 기침을 하신지 벌써 열흘 남짓이 다 되어간 것 같다. 그저 단순한 감기이려니 하기엔 어머니께서 너무 아파하시는듯 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별것 아니라며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하셨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못난 딸내미를 학교에 보내려고,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으신다.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인가 보다.

내 생일을 한 15일쯤 앞두고 있을 때였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선 책가방을 던져놓고 거실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메모를 남겨 놓으신 게 보였다.

“사랑하는 딸 성미야, 엄마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하게 될 것 같구나,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못들어 올 것 같으니 문단속 잘하고 아침은 꼭 챙겨먹고 가야 한다. - 아빠가 -”

이 쪽지를 읽고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프신건지... 또, 그동안 어머니 말씀을 잘 안들었던게 생각이 났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었다. 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간절히... 간절히...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난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잘해 드리지 못했을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머니 대신 아프고 싶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신지 일주일이 넘었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집안일들을 내가 대신하게 되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지 미처 몰랐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만 느껴졌다.

토요일 방과 후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의정부 병원으로 찾아갔다. 혼자서 외지를 나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의정부라는 곳이 두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건 문제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다. 8215호...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실이였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닝겔을 맞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겨우 참아야만 했다. 입원하시기 전보다 더욱 쇠약해

지신 것 같았다. 어머니께선 나를 보시며 밝게 웃어주셨다. 가슴 한구석이 육신거리며, 목이 메여왔다. 진정 힘든 것은 어머니였지만, 어머니께선 내뭍 걱정부터 하셨다. 생일도 못 챙겨주게 되서 미안하다고, 빨리 퇴원 해야겠다고...

그 날 어머니 병실에서 간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머니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나는 새삼스레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편지 한장을 주무시는 어머니 머리맡에 살짝 올려두고, 병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 가족이 있는 삶

김 경 아 | 동두천고등학교 (2)

나는 나의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텔레비전의 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기사는 불이 난 집에서 딸을 살리려고 아빠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딸을 살리고 그 자신은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도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아버지인 것 같다.

이 기사를 보고 나는 과연 우리 아빠도 날 위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가끔씩 우리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아빠는 담배를 잘 피우신다. 끊으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끊지 못하시는 것 같다. 때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담배 연기를 훌훌 내뿜으신다. 그럴 땐 아빠가 약간 밉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술도 잘 드신다. 평소엔 너무 엄하시고 무뚝뚝한 아빠지만 술에 취하면 다정해 지시기도 하셔서 좋

지만, 때로는 술을 드시고 엄마와 싸우기도 하셔서 그것도 싫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우릴 제일 위하신다는 걸 안다. 우릴 위해서 그렇게 고생 하시는데 너무 투덜거리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얼마전 '가시고기'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아빠와 아들 간의 사랑을 슬프게 그린 소설이다. 그 책을 읽고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책에서 아빠 가시고기는 자신의 자식들이 앞에서 깔 때까지 지키다가 자신의 자식들이 깨면 돌 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간다고 했다. 그 책 속의 아빠는 정말 그 아빠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나올 때까지 고생을 하고, 아들이 다 낫자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고 만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다.

나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언니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 그렇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김 선 화 | 동두천고등학교 (2)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듯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나에겐 무궁무진한 꿈과 가능성이 있다. 바란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나의 꿈은 회계사이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많으나 우선위로 이것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공부를 한다. 내 주위에도 웹 디자인, 프로그래머, 요리사 등 제각기 꿈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미래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등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이 사람은 능력이 안되어서 이런 미천한 일을, 저 사람은 재능이 많아 저런 거대하고도 훌륭한 일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아나, 사람들 모두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을 시각으로서 판단하고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비춰진 한 청소부 아저씨의 모습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지친 몸으로 세상의 뒤편을 벗기려 문을 나

서시는 모습. 그 등굽은 모습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란 걸 느꼈다. 그러나 그 분에게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에 수석으로 들어간 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다시금 되새기는 말에 눈시울이 젖어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의 가슴을 울렸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아들에게서 난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이라고나 할까?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모습... 아들의 마지막 말이 나에게 확 와 닿았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게 공부였어요.”라는 말...

평범한 말이 주는 위력을 새삼 느꼈다. 너무도 남루한 아버지를 이해해 주는 아들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며,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 아름다운 삶

조 용 심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1)

아름다운 삶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에서 보는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우선 고등학교는 대학을 전제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서 아름다운 삶은 공부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건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서로 다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춤을 잘추는 사람 등 각기 좋아하는 것들과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학교에서는 같은 걸 추구하고 자기의 특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인정받는다 해도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돈을 못벌어 빈곤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수학 선생님을 보면 그 분은 대기업에 좋은 조건과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분이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수학과를 다시 다니셔서 지금은 수학 선생님이로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 선생님께서는 나중이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듯 아름다운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현한다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 인생은 아름다워

김진주 | 보영여자고등학교

가만히 앉아 창밖에 세상을 바라보라. 조용한 듯 하지만 그 속에 삶의 열정이 있다. 그 속에는 인생의 미가 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거기 있다.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은 강인함이 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내는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만이 가질수 있는 그것이다.

우리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학교생활에서 느껴지는 무료함과 지루함. 그 속에서 우리는 40여명의 친구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들으며 살아가길 10여년. 이제는 그 무료함을 이겨낼만한 무언가가 생겼을만도 하다.

요즈음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부터 언제부턴가 그랬다.

‘이건 아닌데...’

감옥과도 같은 교실에 갇혀서 공부기계처럼 공부만 해야 하는 학벌지상주의 대한민국의 가엾은 고등학생들이여! 어떤 출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는가? 명문대라는 출구를 위해 달려간다. 80만 고

3들의 유일한 돌파구인 명·문·대.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12년이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자신의 소질이나 특기 개발이 아닌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당하고 학교의 규율에 의해 억압받는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참 의미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입시전쟁에 쪼들리는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명문대요, 일말의 인생의 참 목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명문대일 것이다.

웃으며 한평생을 살아도 모자란 것이 인생이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것이 인생이라 하지 않았던가.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걱정과 실망으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한 시간마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다시 되돌려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인생의 미를 느끼는 것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네가 아닌 바로 나인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생있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소중한 보람있게 사용했는지 느낄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살아가는데 있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인생에 있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과 성공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한낱 일회용에 불과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나? 하고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한번뿐인 인생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모두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새장에 갇힌 새 중 하나는 “새장이 있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새는 “이 새장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어 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다. 똑같은 새장에 갇혀 있지만 한 새는 행복해하고, 다른 새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은 주위 환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좀 더 열고 세상을 보면 우울하고 무의미했던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명문대 만이 유일한 출구일지 모르지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면 저 멀리서 또 다

른 출구가 보이게 될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정말 크게 대성한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대성배경을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 지금 나는

(부제-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 상 미 | 동두천고등학교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토종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보기 힘들 정도지만 그 개구리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엄지손가락 만한 크기에 청개구리와는 반대로 짙은 갈색을 띄고 있는 개구리, 매일 손바닥 크기만한 큰 개구리를 보다가 토종 개구리를 보니, 귀엽기도 했고 평소 싫어하던 개구리였지만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집 근처의 논에도 매일 울음소리로 나를 괴롭히는 잡종 개구리가 아닌, 토종 개구리로 가득 메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가 지난 후, 아빠께서 나에게 앵두나무에 가서 앵두를 따오라고 시키신 적이 있었다. 비록 시험기간 중이어서 앵두를 따는 것에 대한 작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앵두가 모두 맛있었고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한 나였기에 아빠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

앵두나무로 가는 길...

나는 그 곳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아직 익지 않아서 녹색을 띄고 있는 토마토, 살구나무에 위태롭게 매달린 살구들, 그리고 논을 지나는 길에서는 밭을 내딛

을 때마다 이리저리 분주롭게 뛰어다니는 개구리들도 볼 수 있었다. 순간 나는 밭길을 멈추고 개구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난번 내가 TV에서 토종 개구리를 보고 난 후의 순간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구리들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손가락만한 작은 몸에 진한 갈색이고, 검은 점들이 있는 토종 개구리였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개구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지만 뾰족한 개구리의 입을 본 순간 개구리임을 믿을 수 있었다.

우리 동네에도 토종 개구리가 있었다니!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내가 많은 것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앵두를 따고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토종 개구리들... 어쩌면, 그 개구리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우리 동네의 논에서도 토종 개구리가 아닌 덩치만 큰 잡종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토종 개구리들을 잡아먹고 사는 황소 개구리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내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쓰고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자연을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토종 개구리를 보며, 내가 아니 사람들이 점점 잡종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많이 달라지고 바뀐 세상에서도 나만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사는 토종 개구리가 되고 싶다. 아무리 많은 개구리들이 잡종이 되고 그 잡종 개구리들이 논을 가득 메운다 해도, 나는 영원한 토종 개구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오늘따라, 지겹기만 했던 개구리의 목소리가 나에게 더욱 밝게만 느껴진다.



## 나를 위한 의자

백 가 예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1)

이 세상에  
내가 처음 숨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처음 태어나  
추위에 시달릴 때  
당신의 옷을 벗어 내게 주었습니다.

허기에 쫓길 때  
당신의 전부였던 빵 한조각을 내게 주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  
당신의 팔과 다리를 내게 주었습니다.

외로워서 쓰러질 때  
당신의 마음까지 내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가 자신을 희생하며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무 밑둥만 남아서  
그마저도 소년의 휴식을 위해 의자가 되어 주었듯이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감추시며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의자가 되어  
내가 앉아 쉬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한 나였지만  
이제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께  
작은 기쁨이나마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나는 지금> 이데아는 없다

황 혜 영 | 보영여자고등학교 (3)

소낙비가 그쳤다.

하늘은 조심스레 조각배를 띄운다.

산도 과감히 목은 때를 벗어 버렸다.

나는 피곤에 절은 흰나비가 되어  
도심에서 빠져나와  
언덕을 향해 날개를 편다.

나뭇가지에 짙기고  
거미줄을 헤치고 나와도  
흰나비는 도무지 숲이 무섭지 않다.

더 큰 푸름 속으로  
더 밝은 빛 속으로  
흰나비는 질주한다.

빛의 용트림이 흰나비의  
지친 양날개에 사뿐히 내려 앉아  
찢긴 날개를 조심히 어루만진다.

흰나비는 생애의 절반을  
숲을 빠져 나오는데 써버렸다.  
하지만 나비는 행복했다.

흰나비는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푸름 속으로 뛰어든었다.

주인 없는 무덤가  
질긴 잡초들의 뻗죽한 잎이  
흰나비의 연약한 살과 날개를  
사정없이 찢러댔다.

흰나비는 지친 몸을 바람에 싣고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따스한 빛 속으로 올라갔다.

작렬하는 태양빛은  
흰나비의 날개마저 태워 버렸다.  
꺼져가는 작은 생명은  
밀으로 밀으로 곤두박질쳤다.

뿌연게 흐려져가는 눈앞으로  
도심이 펼쳐졌다.  
높은 고층 빌딩과 바쁜 사람들

흰나비는 그토록 미워하던  
도심 속에서, 인간들의 모습에서  
생명의 태동을 느끼고는  
도심을 향해 눈을 감는다.



## 아름다운 삶

윤 이 나 |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3)

방문을 열었다.  
온통 어둠뿐이었다.  
한 아이가 울고 있다.  
다가가 묻었다.  
왜 그리 슬피 우냐고...  
너무 힘이 든다 한다.  
세상 모든 것이  
힘이 든다고 한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어 섰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힘들 때 주저앉아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맘껏 웃을 수 있는  
당신이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곳 이라고...





## 하늘이시여...

윤 이 나 |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3)

하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변덕쟁이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음에도 당신을 숭배합니다. 저는...

이 세상 모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늘이시여...

나를 위하고 나를 우선으로 하시는  
당신의 깊은 배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 꿈 밖의 세상

홍 민 식 | 중앙종합고등학교 (3)

항상 꿈속에서만 뛰놀던 나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어 버린다.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꿈속으로 되돌아가려  
발버둥치지만,  
뒤에는 빛이 없다.

난 그 벽에게서 도망을 친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곳에서 끝없이 헤메인다.

하지만, 난 벽 너머에 있는  
“꿈”이라는  
한 글자를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하지만  
아직은 뛰어넘을  
용기가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벽을 뛰어 넘었을 때,  
누구에게서도 도망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 나의 삶

강 영 철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2)

땅위를 분주히 움직이는  
작은 개미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길만을 간다.  
거대한 손으로 그들을 막아 보라.  
그들은 신경쓰지 않은 것이다.  
당당히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들처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삭막한 도시숲을 힘겹게 나는  
하얀 나비들을 보라.  
그들은 달콤한 꿀과 꽃을 찾아 난다.  
웅장한 빌딩들이 그들을 가로막는 듯  
그들은 신경쓰지 않은 것이다.  
꽃꽂히 자신들의 꽃을 찾아 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들처럼 나는 나의 꿈을 좇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 마음속에 그려진 하늘

장 도 열 | 보영여자고등학교 (2)

하늘을 보면  
내 맘 속에 모든 것을 꺼내  
말할 수 있습니다.

푸르고 넓은 하늘은  
내 마음 속 도화지가 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아마도...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는 듯  
언제나 미소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하늘에는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늘은  
내 가슴 속 깊이 새겨  
살아가고 싶습니다.





## 하늘

홍 승 표 | 동두천고등학교 (2)

하늘이란 무엇일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하늘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하늘은 마음  
저 높고 넓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고 푸르며  
하늘이 하나이듯 마음도 하나뿐

우울할 땐 비를 내리고  
화가 날 땐 천둥을 치며  
기쁠 땐 밝은 햇살을 비춰주고  
외로울 땐 조용한 어둠을 준다.

하늘이 무엇일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하늘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 청 공

박 선 영 |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 (1)

푸른 바다 사이로  
자유로운 날개짓의 새가 춤추고,  
하얀 조각배가 떠 다닌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하얀 조각배에 몸을 실어.

나는 높고 푸른 바다로  
깊이 깊이 빠져든다.

맑은 창공을 자유로이 질주하는  
새와 함께,

푸른색으로 물들어버린  
바람과 함께,

그렇게 그렇게 언제까지고  
나는 높고 푸른 바다에  
빠져 들고 싶다.





## 같은 색, 같은 향

전 은 미 | 동두천여자중학교 (3)

옛날 옛날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가득 핀 꽃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장미’라는 꽃이 있었는데, 모든 꽃들은 장미의 모습과 향기에 반해 장미를 닮기를 원했다. 그 중에는 꽃의 나라 왕도 끼어 있었다. 그 왕은 항상 장미만 생각했다.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장미를 옆에 두고 싶어 했다. 하루는 백합왕이 신하들에게,

“여봐라. 짐은 어느 곳에서나 장미를 보고 장미의 향을 맡고 싶는데 어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벚꽃 신하가 대답했다.

“폐하, 소인의 생각으로 장미를 집안, 정원, 뒤뜰 같이 곳곳에 장미를 심는 것을 유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장미는 모든 곳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무궁화 신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장미를 유행시켜 사시사철 장미만 보는 것보다는 한달에 한번이나 일년에 한번,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장미의 축제를 열어 마음껏 감상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합 왕은 한참동안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을까... 장미의 축제를 기다리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장미를 유행시키는 것?

왕은 한참이나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꽃가루들에게 전달해, 장미를 유행시키도록 해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짐은 벚꽃 신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으니, 아무말도 말고 따르도록 해라.”

벚꽃 신하는 꽃가루들에게 이야기했다.

“요즘 유행은 장미를 키우는 거래~

집앞 뜰, 정원에 모든 곳에 장미를 키우는 거래~”

꽃가루들은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퍼졌고, 사람들도 워낙 장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도 장미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 그리하여 다른 꽃들은 버려지게 되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온 나라에는 오직 장미만 가득했다. 장미의 색, 장미의 향, 모든 곳에는 장미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던 장미가 지겨워 보이기 시작했다. 한사람 한사람씩 다른 꽃들을 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꽃의 마을은 다시 여러 가지 꽃들이 지천으로 피게 되었고, 다양한 모습, 다양한 향을 다시 알게 된 사람들은

웬지 모를 행복감이 들었다.

만약 실제로 이 세상에 같은 색, 같은 향을 가지고 있는 꽃들만 존재한다면 그것처럼 삭막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동그란 모양의 머리 끈을 했는데 그 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똑같이 예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자신만의 유행'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유행을 다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유행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색, 자신의 향기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생각해 보면 유행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자신의 분수에 안 맞는 것을 할 때가 있다.

지금...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 개성을 꼭 찾아보자.' '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항상 이 생각을 되새기며...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겠다.





## 유행과 개성

오 자 연 | 동두천여자중학교 (3)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눈깜박 할 사이에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대 변화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

엣그제만 해도 최고 유행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사람들의 눈은 다른 것을 쫓고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하고 싶어한다. 낡은 것보다는 새것, 예전 것보다는 그보다 나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란 것이 생긴 것 같다. 자신이 가진 무언가가 남의 것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면 얼른 그 사람의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유행인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만 해도 그렇다. 요즘 학생들은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에 목숨을 걸며 그 사람을 부러워 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똑같은 치장을 하거나 같은 행동을 하며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아마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따라하기'가 시작된 것 같다.

물론 이런 유행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유행은 한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이 유행이라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웬지 사람들 각자의 개성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벌레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인형공장의 인형들처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치장...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인형공장의 인형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왜 비슷한 모습을 하고선 서로 더 낫다고 뽐내는 걸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면서 뒤죽박죽이었으면 좋겠다. 마치 물방울과 같이... 물방울은 적당히 제 모습을 갖춘채 가지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다. 사람들도 물방울처럼 적당한 조화 속에서 자신들의 개성과 빛을 뽐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보다 "개성을 따라간다"는 말이 더 흔해 졌으면 좋겠다.

## 해와 달

박 다 룡 | 보영여자중학교 (3)

나에겐 절대 만날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밤을 지키는 달이지요. 난, 지금 여러분께 빛을 주러 가는 길입니다. 내 친구 달은 벌써 갔겠죠.

해였던 나와 친구인 달. 우리가 처음부터 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낮을 비추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세상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었으니까요. 밤은 언제나 캄캄하고 무서워서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응석받이인 날 위해 달은 무서움을 꼭 참고 밤을 비추었어요. 난 언제나 달에게 미안했지만 낮과 바꿔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달은 얼마나 힘들까요? 캄캄한 밤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무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지나가는 구름친구와도 얘기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달은 나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마 날 생각해서겠죠?

내가 달과 친구가 된지는 아주 오래 되었어요. 수만년, 아니 아마 수억년도 넘었을 거예요. 정말 오래됐죠?

우린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아요. 지나가던 새들도 얘기해 주고, 구름도 얘기해

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요. 옛날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달에는 계수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나 뭐라나... 내가 지나가던 구름에게 사람들의 얘기를 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달도 얼마전 나와 같은 얘기를 들었대요. 내가 달에는 정말 무엇이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것 비밀이래요. 언젠가 알려준대나? 난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알려주기로 한 내 소원도 비밀이라고 말했죠. 달이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던 중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달에는 흙과 먼지 뿐이고 토끼와 계수나무는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달에 뭐가 있는지 안 것을 달에게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난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 웬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빛을 막 쏘아주지요. 나 혼자서 깔깔깔 웃으면 빛이 마구 쏘아져서 사람들의 살을 까맣게 만들게 되요. 달은 이런 나에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요. 하지만 난 그 버릇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들은 별을 받아야 해요. 내 동생인 지구를 아프게 하니까요. 지구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프게 해도 지구는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거기다 여전히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난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에 쌓여있던 오존층도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난 앞으로 그 구멍 안으로 빛을 마구 쏘아줄 생각이에요. 날 미워하지 말아요. 난 동생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싫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에게 용서받고 싶으면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요새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전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 친구인데 그럼 안돼는 거잖아요. 나와 달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양보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면 싸움은 해소될 거예요. 우리 모두 우정을 지켜 가기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하루를 보냈군요. 난 이제 그만 가야돼요. 이제 내 친구 달이 올 거예요. 아마 오늘도 달을 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만나든 못 만나든 우리 영원한 친구일 테니까요.

달아! 난 이제 가는 길이야. 널 또 못 본 채로... 나 대신 까만 밤하늘 잘 지켜주렴. 언젠가 내 소원 알고 싶다고 했지? 내 소

원은 별이 되는 거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별똥별이 되도 좋아. 잠깐이라도 널 볼 수 있을 테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늘어겠지만, 우리 영원한 친구로 남자. 보고싶은 맘 모아서 너 오면 보라고 노을로 남길게.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의 우정 기억하길...



## 유유히 흐르는 강물

남 재 우 | 신흥중학교 (3)

강이란 너무도 은은한 존재이다 영롱한 달빛을 받아 은빛을 발하며 흐르는 추억의 본고장.

예로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하여 소중히 여겨왔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도 불리는 비. 비가 내리면 산에 우물이 생기고 그 물이 흘러 냇물이 되고, 여러 곳에서 모여 강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강이란 시작이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난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강의 시작을 안자는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자이고, 진정한 강의 끝을 안자는 삶의 진실을 깨우친 자라고 말이다.

강. 그 끝없는 순환에는 생명의 정열이 넘친다. 생명들의 숨소리. 자연의 보고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다 강에는 꿈꾸는 자들의 추억이 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추억, 친구와 싸우고 화해한 추억, 사랑이 이루어진 추억 등, 여러 행복한 추억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 여러 추억들이 있다. 은빛으로 빛나는 영롱한 강물을 볼 때마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 일까?

혼자 보면 외로움이 한층 더해지는 강

빛. 하지만 둘이 같이 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두배가 되는 강빛.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빛이다. 우리의 곁에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바로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돌을 강에 비스듬히 던져 수면위를 튀기는 놀이를 해봤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 놀이를 “수제비 따먹기”라 불렀다. 이 놀이도 강가의 추억 중 하나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를 수 없는 꿈이나 소망을 돌에 담아 강에 던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너무 큰 슬픔이라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추억들. 그 추억들조차 강은 싣고 있다.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 지금 우리의 보금자리, 강은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의 부주의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추억들은 결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슴 아픈 추억도 우리의 정서를 성숙시켜준 하나의 추억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사라져가는 추억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강에게 등을 돌리고 무관심할 때 그 때도 강은 우리의 추억을 간직한 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믿



고 기다린 강이야 말로 우리의 진정한 벗  
이요, 소중한 보물이다.

나는 야간 기차에서 본 다리밑 강가 풍  
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화려한 네온싸  
인과 조명들의 빛을 그래도 반사하고 있  
던 강물, 모래에 부딪쳐 내는 소리도 마음  
의 긴장을 풀어 주었다.

강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는가? 강가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가? 강은 바다로 나  
갈 때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짜디짠 염  
분을 받아 들인다. 다시 우물로 시작할  
그 날을 꿈꾸며...

나는 친구들과 강으로 소풍을 가자고 해  
야겠다. 친구들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 강의 황홀함  
을 한번 본 자는 그 여운을 잊지 못해 다  
시 강을 찾게 된다. 유유히 흐르는 강의  
여운 때문이다.



## 초록강의 속삭임

조 현 경 | 보영여자중학교 (2)

“졸졸졸...” 그 맑은 물 속에는 각기 종류의 작고 소박한 민물고기들이 자유로이 헤엄치고 있고, 햇살은 초록강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진 초록강은 그저 맑고, 밝은 눈으로 방긋 웃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집 앞을 힘없이 흐르고 있는 초록강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초록강이 아니야. 그저 검게 찌들어 맨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는 어두운 강이야.”

그 목소리는 예전의 씩씩하고, 밝았던 초록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초록강은 그저 그 어두운 얼굴로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 크고 무서운 구멍들이 검은 피를 토해낼 때마다 초록강 맑은 물 속에서 숨쉬고 있던 작은 물고기들이 하나, 둘 초록강을 떠나가고, 끝까지 초록강에 남아 미세하게나마 초록강을 숨쉬게 해주던 물고기들도 작고, 좁은 배를 드리우고 있었다. 초록강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큰 구멍이 무섭다고 했다. 여기저기 뚫려 있는 그 구멍들에서 나오는 검은 피들과 좁은 배를 드리운 물고기들, 또 초록강의 긴 한숨 소리는 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을 낱알이 밝혀주고 있는 탐정 같았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우리 마을을 지켜

주던 든든한 수호신인 초록강이 이제는 오히려 썩은 냄새를 풍기고, 땅값을 떨어뜨린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을 사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기보다 초록강을 향해 원망의 말을 던지는 마을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초록강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한다. 초록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초록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많이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던 초록강을 이제는 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켜줄 차례인 것 같다.

따사로운 햇살이 초록강을 향해 방긋 웃고, 예쁘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밝게 웃고 있는 초록강을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

초록강이 푸른 모습을 되찾았을 때 그때는 꼭 초록강이 나에게 힘들다는 말과 도와 달라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썩은 냄새를 풍기거나, 땅값을 떨어뜨리는 초록강이 아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 “초록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아저씨의 꿈

홍 란 | 동두천여자중학교 (2)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기 한쪽에서 비치는 한줄기 빛... 바로 꿈...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아저씨를 처음 보았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약간 무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저씨는 바로 우리 윗집에 살고 계셨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까지 노래를 부르셨고, 심지어는 큰 난동까지 부리셨다. 이런 일을 예전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드나드셨다. 난 불만이었다. 아니 창피하고 싫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누구야?”하고 물어보고, 마땅히 대답할 말도 없었다. 엄만 같은 이웃이고 아저씨가 딱 하니까 같이 밥 한끼 먹는게 어떡냐고 날 나무라셨다.

아빠 “넌 장애인은 위할 줄 알면서 너와 똑같은 사람은 위할 줄 모르니?”하고 혼내셨다. 그렇다. 나의 꿈은 선교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데 커서는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하는 생각이 나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 날 이후론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저씨는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다. 흔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는 TV에서나 책 속에서나 듣던 이야기.. 그런 것이 아저씨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아저씨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집나간 아줌마와 자식들을 찾아 드릴 수는 없고... 생각 끝에 난 아저씨의 딸이 되어 드리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어린 내가 아저씨의 힘든 짐을 들어 드리는 역부족이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술마시는 횟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난 내 꿈이 어려운 것이란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믿고 또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왔는데.. 하지만 나의 꿈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더 굳건해졌다. 인간이 패배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다. 엄마 아빠께서도 모른다고 하시고 아저씨 집에도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아저씨께서는 옷이 엉

망이 되신 채 손에는 돼지고기와 양말을 드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물으니, 우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막노동을 하셔서 돼지고기와 양말을 사오셨다고 하셨다. 난 세상에서 그렇게 값진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 아저씨의 꿈은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식들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내 양말이 아빠 양말처럼 크고 길었지만 아저씨의 마음처럼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신었다.

그날 이후 아저씨와 같이 교회에 갔다. 종교를 가지면 아저씨도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리라는 확신이 나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낯선 분위기에 쑥스러워 하셨지만 나의 예상대로 아저씨께서는 술을 차츰 줄이셨다. 어느덧 방학을 맞이하여 나는 할머니댁에 놀러갔다 왔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이 너무나 소란스러웠다. 아빠께서도 일을 안 나가시고 엄마 아빠 표정도 매우 어두웠다. 바로 아저씨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다. 아저씨께서는 간암이셨다고 한다. 더구나 추운날 차가운 냉방에서 지내셨으니 몸이 쇠약해지셨을 밖에 없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다. 비록 아저씨는 가셨지만 아저씨께서 주신 선물과 교훈 그리고 꿈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눈을 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저기 한쪽에서 비치는 한줄기 빛. 바로 꿈...





## 유행

성명훈 | 신흥중학교 (2)

유행이란, 하나의 문화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따라 하는 행위로 모방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창조성 없이 뭐든지 따라 하는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구별되는 이유는 생각해서 창조해 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든지 따라 하는 유행은 동물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유행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란 본래, 누군가 하면,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기가 따라 행위, 즉 유행이 옳바른 것인지 잊고 남들이 하니까 하게 되는 것이다.

옳바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걸 유행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유행시키되, 좋은 점만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유행되던 것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유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일본문화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원조교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원조교제가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외래문화의 좋은 점을 수용 시켰으면, 우리 나라 정서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 일본의 예를 봐도 우리 나라의 김치를 자기의 기후와 특성에 맞게 기무치로 만들어 확산시킨 좋은 예이다.

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국과 우리 나라의 문화를 옳바로 이해하여 옳바른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또 하나의 나

한 미 희 | 보영여자중학교 (1)

따뜻한 봄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잠에서 깨어난 새싹들이 미소를 짓는 봄이 찾아왔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이 이를 무렵 나는 작고 소박한 초등학교에 아홉 살 밖에 안된 어린 나이에 전학을 오게 되었다.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정문과 후문.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야 할 놀이시설 마저도 녹슬어 버린 작은 운동장. 하지만 즐겁게 뛰어 다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만 보일 뿐이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접어두고, 엄마랑 손잡고 처음 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순간 나는 너무 긴장되어서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평소 내 성격은 무척 활발하고 덜렁거리는 철없는 아이였지만, 이 순간만은 수줍은 아이로 변해버렸다. 간신히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들어갔다. 내 짝궁은 아주 예뻐보였다. 곱게 쓸어 내린 머리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해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안녕?”

그 아이는 나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어왔다.

“안녕?”

나는 그 아이의 말투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그렇게 나는 그 친구와 친해졌고, 이제는 그 아이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현주이다. 현주의 집과 우리 집은 같은 방향이었고, 학교에서부터 한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다. 집으로 향하는 가을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길 한구석에는 참외밭과 개울이 있었고, 작은 다리 하나도 있었다. 산과 나무, 꽃들도 많이 피어 있어 시골 분위기가 절로 나는 곳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이면 현주와 나는 항상 같이 갔다. 작고 귀여운 현주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은 우정을 만들어 나갔다. 그 친구와 함께 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또 다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 봄이 그리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난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팠다. 난 현주와 헤어지기 싫었다. 죽어서도 같이 있자고 약속한 것이 깨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었다. 눈물이 나오려던 것을 꼭 참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울음소리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런 친구들을 뒤로한 채 나는 교실을 뛰쳐나왔다. 나 때문에 슬피하는 현주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뛰쳐나왔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현주와 나는 편지나 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하지만 내가 처음 전학 왔을 때 보았던 현주의 그 맑은 미소는 볼 수 없었다. 중학생이 된 현주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철든 성숙한 아이가 되어 있겠지. 친구란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천 번, 만 번을 불러 보아도 더 부르고 싶은 그 아이의 이름 석자.. 비록 지금은 그 친구와 헤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 통할 것이라 믿는다.

지금 두 눈을 감고 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금도 나를 그리워 하고 있을 그 친구의 해맑은 미소를.....



## 소중한 친구

박민경 | 동두천여자중학교 (1)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상적이지는 못하지만, 얼굴이 예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고 욕을 해도, 참고 또 참는 친구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안돼 보이고 불쌍한 마음에서 그 친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편지도 쓰고 같이 짝꿍까지 되면서, 나는 그 친구에게 필요하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 해주고, 편지를 준 사람이, 내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처음 그 애를 봤을 땐 꺼려하게 되고,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도 예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 아이들과 가벼운 농담을 건내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아픔이었고, 게다가 욕을 했던 것은 그 아이에게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선생님께 일렀다고 핀잔을 주던 일,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일 그 모든 것이 죄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는 단체 기합을 시키시면서 ‘친구를 괴롭히지 말자’라는 구령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

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좀 특별한 아이에게 잘못 대했다는 것을... 나는 순간 바늘에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때부터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더욱 신경 쓰고,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선생님이 우리를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듯, 나도 그 아이에게 그런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것 같아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다. 그 애에게 사소한 것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양말은 어떻게 신고, 옷은 어떻게 입고, 그런 것들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는 관계까지 되었고, 나는 그 순간 왠지 모르는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나로 인해 그 아이가 잘된 것 같았고, 그 아이의 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그 아이가 계속 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지만,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나는 그 친구의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친구로 인해 사람의 소중함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중요하단 것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해준 나의 소중한하고 소중한 친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잊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수미야! 고마워~



## 인생이라는 길의 동반자

조 세 형 | 신흥중학교 (2)

누구에게나 각자가 서로 경쟁을 하며 나아가는 마라톤 코스와도 같은 길고도 긴 인생이라는 길이 있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혼자서 가기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마라토너는 너무나 약하기만 하다. 반칙을 하지 않고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완주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악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더 남보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친구라는 촛불과도 같은 영원한 동반자와 서로 의지를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축하를 해주며 서로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자신의 친구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한 연후에 행동을 하는 일,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등 친구를 배려하는 멋진 친구를 말이다.

물론, 내가 여기서 밝힌 친구처럼 우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친구를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용하거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친구나 힘이 약하거나 머리가 나쁜 불쌍한 친구들을 경멸하고 괴롭히며 업신여기는 악마 같은 친구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사귀면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들이

더욱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의 말씀처럼 무조건 멀리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럼 친구를 사귀는 방법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인도의 민족 지도자 이셨던 간디 선생님 같이 행실이 나쁜 친구에게 자신이 나쁜 방향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자신처럼 좋은 쪽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친구를 자기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법을 실행할 배포가 없다면 그냥 어른들 말씀처럼 나쁜 친구들 껌에나 빠지지 말고 좋은 친구나 찾아서 사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친구를 계산적으로 사귀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디까지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귈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 말이다. 하여간 친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다.

행복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행복해 하고 축하해 줄 사람이 없고, 혹 나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조차 없으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눈에서 굵은 눈물이 펄펄 나와버리는 서러운 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친구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사



람의 인생은 아무리 곤궁한 상황이라도  
위기를 친구와 함께 손쉽게 극복을 할 수  
가 있지만, 지금 최고로 부유하다고 해도  
만약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바  
람 앞에 촛불과도 같아 작은 위기라도 닥  
치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친구는 어찌 보면 부모보다 나의 속내를  
더욱 많이 아는 세상에서 부모님, 선생님  
과도 같은 세상의 어떤 값진 선물과도 비  
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친구인 이유

김 아 립 | 동두천중학교 (1)

먼저,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도 그 친구의 사랑과 우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는 4학년 때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지만, 우리는 서로 뭔가 통하는 것을 느꼈고 금방 친해졌다. 그 친구는 이해심이 많고 착했다. 그에 비해서 난 이기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친구에게 너무나도 편하게 대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얼핏 든다. 언제나 조금만 잘못을 하면 내가 선생님이라도 되는 듯, 엄마라도 되는 듯, 혼을 내고 그 친구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꼭 숙이고... 어쨌면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재미를 느꼈다는 생각도 든다.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친구이고, 왜 친구인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학교의 분교에 갔었을 때의 일이다.

가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같이 앉아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과 다름 없는 친구 사이였다. 분교에 도착해서 쪽 돌아본 다음 자유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친구와 나와 또 다른 친구들이 더워서 수돗가로 가서 세수를 하다가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을 뿌린 장난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장난이었는데, 우리는 그 친구에게 집중으로 물을 뿌렸고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그 친구가 결국에는 화를 내고 말았다. 그 친구는 화를 내게 만든 또 다른 친구에게 ‘안경 벗어’라고 계속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난 반장이고 그의 친구였기에 계속 말렸으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그 두 친구는 선생님께 걸려 벌을 받게 되었다. 난 너무나도 화가 났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다. 선생님이 용서를 해 주신 뒤, 난 그 친구를 불러서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주먹이 날아갔다. 그 친구는 나에게 학교로 돌아가서 말하자며, 나를 설득했다. 학교에 도착한 뒤,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황량한 운동장에는 우리 둘만이 남았다.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오늘 모든 얘기를 하려고 걱정했는지, 나에게 먼저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는 “이건 니가 내게 함부로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이야” 또 한 대 때리고는 “니가 날 때린 값이야.”

난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서로



뒤웅켜 싸우게 되었다. 둘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싸울수 없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평소엔 그런 행동 싫다고 말 안했어? 말하기가 쑥스러웠던거야?” “아니, 그냥 한 말이야 너한테 불만 없어.” 난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내 불만만 늘어놓았다. 특히 그 날 있었던 분교에서의 일, 그 친구가 그렇게 크게 화낸 것은 처음 봤을 뿐더러 내게 그런 불만이 있는지 몰랐기에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난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화가 났지만 내 잘못이 너무도 컸기에... 그 친구는 나의 사과에 이렇게 답했다.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그렇다. 우리는 친구이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므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난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뒤로 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친구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정말 친구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나도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내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아야겠다. 그 친구가 참 보고 싶다.

“친구야, 사랑해.”



## 사진 속에서

변 기 돈 | 신흥중학교 (2)

우리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한 쪽의 그림자도 같은  
하얀 목련꽃이 보입니다.

저 목련꽃은  
결혼 사진 속의 어머니이십니다.

저 목련꽃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봄처럼 따스한 미소로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는  
어머니는 목련꽃입니다.

사진 속과 같이  
저 목련꽃과 같이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머니

최 경 일 | 신흥중학교 (2)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키우신다.

손이 아프신데도  
아픈 내색을  
안하시던 어머니...  
공부하라...  
잔소리가 나에게  
참고서가 된다.

어머니는  
나의 희망의 손  
어둠이 몰려 와도  
사랑으로 물리치실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조용히 눈물로 기도를 하신다.



## 날마다 꾸는 꿈

김 해 룡 | 보영여자중학교 (1)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날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날마다 꾸는 꿈속의  
나입니다.





## 동두천 사랑

김 해 룡 | 보영여자중학교 (1)

우리나라 제일 가는 곳  
우리 동두천시.

푸르른 소요산의  
맑은 공기 마시고

웁글웁글 적상추에  
고기 한입 먹으면

우리 동두천시 향  
한번에 알 수 있다.

외국 사람 왔다가면  
부러워서 울고 가는 곳.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 강물이 말해주는 것

신 희 선 | 보영여자중학교 (3)

어제도 내곁에서 강물은 알려줬네.  
자기가 빛아래에 있음을 알았다고.  
햇님이 내리쬐주어 보석처럼 빛남을

오늘도 어김없이 강물은 얘기하네.  
간밤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느냐고.  
화려한 별빛 나들이 계획없이 갔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강물은 속삭이네.  
좀 전에 왜 방랑객 찾아와 반겼다고.  
떠돌이 푸른 나뭇잎 갈 곳 없어 왔다고.



오늘도 한결같이 강물은 들려주네.  
저 위에 내 친구가 있음을 몰랐다고.  
내 위에 맞닿아 있는 드리워진 큰 하늘

오늘도 재잘재잘 강물은 수다떠네.  
맨발로 첨벙대는 아이들 장단맞춰  
흥겨운 이름도 모른 장단치기 했다고.

이순간 내 귓가에 강물이 새겨주네.  
자기가 바라보며 비추는 주인공은  
저 만을 오롯이 보며 서성이는 나임은...



## 세월속의 늪어버린 강

김 상 은 | 보영여자중학교 (1)

잠시 스쳐가는 듯한  
푸른빛을 띤 채  
세월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과거를 들으며  
회상속의 마지막 남은  
삶의 근원인 강.

세월의 흐름속의  
때로는 인자한 군자로써  
때로는 성난 항소로써  
사람과 더불어 살아온 강.

변화하는 세월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낮에는  
녹빛으로 물든 산과  
밤에는 외로워진  
하늘과 동무가 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강.



하지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서서히  
죽어가는 강.  
마치 밟기만 해도 부서지는  
돌맹이처럼  
그리고 쇠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또 하나의 강.

동두천의 젓줄 한탄강  
햇빛에 녹아내리던 강이  
흙먼지만 내뿜는 사납고  
메마른 땅이 되었다.

세월의 흐름과 같이 하던 강  
이제는 늪어버린 노인같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강.

물이 그리워 몸부림치는  
강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속 강에 대한 추억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구나.

## 날마다 꾸는 꿈

이 진 필 | 보영여자중학교 (3)

조그만 아이가  
양 볼에 꿈은 듬뿍 담아  
바람과 함께 분어 넣어  
커다랗게 부푼 풍선을  
바람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깁깁 묶어 놓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바람이 달아나  
크게 부푼었던 풍선이  
자꾸 작아만 진다.





# 아빠

이 소 희 | 생연초등학교 (4)

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빠와만 살아 왔습니다. 집에는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서울에서 직장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는 가끔씩 밖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엄마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끔 엄마가 보고 싶고 슬프기도 하였지만, 아빠와의 생활도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아빠와의 생활과 익숙해지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살 때 아빠는 미국에 계시는 바람에 아빠와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괜찮습니다. 아빠와 산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빠는 저에게 엄마 대신에 일을 해주셨습니다. 빨래, 나의 숙제 검사. 밥....

그래서 저희 아빠는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고 저녁때 집에 돌아오시면 집안 일을 하시느라 새벽 늦게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와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2학년 3학년때는 아빠가 힘든 줄 모르고 철없는 행동만 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힘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빠를 위한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집에도 엄마가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엄마가 계시면 아빠가 덜 힘이 들테니까... 아빠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아빠를 위하여 한 일이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고, 동생도 잘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기쁘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 아빠와 고궁에 가던날

전 민 석 | 동보초등학교 (4)

하루 일과에 쫓겨 좀처럼 먼 길을 동행하기 힘든 아빠와 나는 어느날 서울행을 나섰다.

바로 학교에서 가정 현장체험 학습일로 하루를 선뜻 지정해 준 날, 만사 제쳐 놓고 덕수궁으로 향한 것이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덕수궁, 빌딩과 자동차 숲속에 아직도 옛모습을 잃지 않고서 아빠와 나를 기다리는 덕수궁, 그 뜨락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고종황제께서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겼다는 뜰에는 그 새 작약꽃이 피어 있었고 비둘기가 하나 둘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백년도 더 된 등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아빠와 나는 분수에서 뿜어대는 시원스런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물줄기는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활처럼 몸뭉시를 마음껏 뿜내고 있었고, 하늘은 아빠처럼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평화와 안전만이 존재할 것 같은 그 뜨락, 그 뜨락에서도 그 옛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겠지. 지금 아빠와 내가 하루의 역사를 엮듯이...

고종황제께서는 검소하셨을까? 황제께서 침전에 드셨다는 방은 의외로 너무 협

소했다. 둥근 탁자와 의자가 있었는데 아빠와 내가 거기에 앉으면 황제와 공주의 기분이 정녕코 날까?

뒷 오솔길을 걸으며, “역사는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세월도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난 시인이 된 듯 아빠에게 말씀드렸다. 아빠도 파안대소, “우리 민석이, 시인이 다 되었네.” 하셨다.

상쾌한 공기를 온 몸으로 느끼며 덕수궁을 나서니 벌써 어스름한 저녁, 수 많은 인파속으로 아빠와 나는 두 손을 꼭잡고 걸었다.

“아빠, 오늘 하루 황제이셨죠? 나는 공주였고요. 오늘 하루 감사해요, 아빠!”

나는 아빠를 올려다 보았다....





## 찬우의 비밀

임 선 화 | 동두천초등학교 (6)

찬우는 길을 가다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상자의 뚜껑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의 뚜껑을 열고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찬우는 펴 듯이 기뻐했어요. 찬우의 소원은 무척 많았어요. 하지만 찬우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만을 말하기로 했어요. 찬우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이였을까요? 찬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아주 아주 작고 귀여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오색빛 아름다운 날개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정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나는 ‘마법의 상자 나라’에서 온 귀여운 요정 ‘유리’라고 해. 이 상자는 마법의 상자란다. ‘마법의 상자나라’를 만드신 마법사님께서 곧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셔서 여기 있게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마법사님께서 나쁜 악당 ‘도도’에게 잡혀갔다고 도도가 나한테 직접 말해 주고, 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면 마법사님이 풀려나게 될 거라고 말했어. 지금 네가 세번째 아이야. 난 한 아이가 오기를 여태 기다렸어. 너의 소원은 뭐니?”

“응, 난 찬우라고 해. 그리고 나의 소원은, 내 어깨에 멋진 날개가 달려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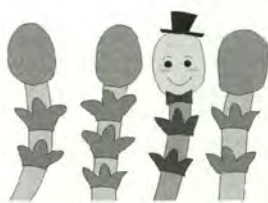
“물론이지 네 덕에 마법사님을 풀어주게 된 것도 기쁘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기쁘. 자, 이제 준비해. 코리코리 뽀뽀뿌~ 찬우의 소원이 이루어져라. 얍!”

유리 요정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니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높이 쳐들었어요. 그러자 찬우의 어깨가 간질간질해 지더니 멋지고 푸른 날개가 돋아 펴터지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뜻밖의 일에 찬우는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리 요정아, 고마워!” 어느새 유리는 흰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마법사와 손을 잡고 손을 흔들었어요. 찬우는 너무 신났어요. 찬우는 지금 한국의 곳곳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와! 저렇게 푸른 산도 있었다니!” “와! 저렇게 크고 맑은 바다도 있었다니!” 찬우는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신났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찬우는 점점 기운이 빠졌어요. 눈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소원도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없구나.” 세상 곳곳을 다 돌아보는 건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붉은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찬우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바람만을 안은 채 들꽃이 한참 피어있는 들에 폴썩!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 들은 아주 폭신 폭신한 들이라 찬우는 다행히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아직 푸른빛 날개는 있었어요. 찬우는 겨우겨우 힘을 내어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찬우는 세상 구경을 포기한 듯 말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실꺼야.”

찬우는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찬우는 자신의 꿈을 순식간에 이루기는 힘이 들꺼라 생각했어요. 찬우는 자신이 요정을 보고 날았다는 것을 비밀로 여길꺼예요.





## 청 소

송 안젤라 | 생연초등학교 (4)

오늘 나는 내 친구들과 청소를 했다. 그런데 청소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빗자루 하나와 작은 쓰레기 밖에 없었다. 나는 빗자루에게 “네가 나를 불렀니?” 하고 물어보았더니 빗자루가 “응, 내가 불렀어.”

“그런데 왜 불렀니?”

“청소를 했으면 우릴 정리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하니?”

“미안해.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괜찮아. 잘못을 인정했으면 됐어. 나를 청소함에 넣어 주겠니? 그리고 곁에 있는 쓰레기들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줄래?”

“그래. 그러지 뭐.”

그리고 나서 나는 쓰레기를 먼저 줍기 시작했다. 빗자루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왜 청소를 하면 엉망으로 하고, 정리정돈을 못할까? 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낼까? 너희 친구들에게 우리들을 아프지 않게 살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해줄래? 그리고 나와 내 친구들을 항상 청소함에 예쁘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 나와 내 친구들도 사랑하

는 집이 있거든. 아무곳에서 돌아다니며 자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뛰어갔다. 그러자 친구들이 “어디갔다 왔니?”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청소함을 바라보며 빗자루와 윈크를 하며 너희 마음을 내 친구들에게 전해줄게 하며 내 마음을 내 친한 친구들에게 전해 주었다. 친구들은 나와 약속을 했다..



## 검둥이 내동생

전 소 희 | 동보초등학교 (2)

사랑스러운 내 동생은 매일 같이 멋부리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내 동생은 항상 멋있고 귀엽다. 그리고 내 동생은 애기때 맨날 나만 졸졸졸 따라다녀서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을 아끼고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 동생을 요즘 유행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싶어해서 엄마께서 사주셨다. 그래서 요즘 한참 청바지를 입고 자랑을 하면서 거울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동생으로 인해 웃음꽃이 핀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화목한 우리집이다. 너무 예쁘게 생긴 나의 동생 전태준이다. 그리고 내 동생은 원래 검둥이인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욱더 검둥이가 되었다. 검은 모습에 웃고 있으면 만화에서 나오는 뼈에로 같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거기다가 춤을 추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개구쟁이 내 동생이다. 그리고 어쩔땐 넘어지면 우는 모습이 짱구같이 생겼다. 그리고 내 동생은 옆집에 사는 장민이라고 싸우면서도 잘난다. 장민이라는 아이는 3살때부터 친구다. 그때는 잘 몰라서 놀지를 앓았는데 이제는 친해져서 둘이서만 아주 잘난다. 그리고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 그래서 개그맨 같

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웃긴다. 그리고 이제는 장민이라고 어린이 집도 같이 다닌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오면 같이 자전거를 타서 더 검둥이가 됐다. 장민이라는 친구하고 자주 싸우면서도 금방 친해진다. 그런데 요즘 장민이가 수족구가 걸려서 어린이집에 같이 못다닌다. 그래서 내동생 태준이가 너무 심심해한다. 그리고 어린 내 동생 태준이가 너무 심심해 한다. 그리고 어린 내 동생이 장민이가 아픈 것을 걱정을 해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같다.





## 물방울의 비밀 속삭임

이 동 주 | 생연초등학교 (3)

“나는 나는 물방울이야. 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너희 친구들에게만 살짝 가르쳐줄게”

“나는 비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친구들을 만나는지 가르쳐 줄게.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나는 연못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더운날 나는 수증기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올라갔어. 하늘나라는 참 멋있었어. 나는 땅 밑을 보았어. 그곳에는 친구들도 보이고 집, 산, 나무, 강, 자동차, 그리고 아주 큰 바다도 보았어. 정말로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곳이야.

그러다가 친구들과 구름이 되어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 어느날 번개 아저씨를 만났어.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들은 땅으로 내려갔어. 한 친구는 나무위에, 한 친구는 지붕위에, 또 한 친구는 풀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는 냇가에 떨어졌어. 그리고 나는 친구들도 만났어. 나는 쏘가리 친구와 소금쟁이, 물방개, 올챙이, 개구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

그리고 흘러흘러 강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커다란 공장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곳에 물은 냄새도

많이 나고, 시커멓고, 물고기들이 모두 아파보였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물고기 친구들이 아파서 죽어가는거야. 우리 친구들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흘러흘러 어디로 갔는 줄 아니? 그 곳은 바다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 그 곳에서 커다란 배도 구경을 하고, 갈매기 친구들도 보고, 어부 아저씨가 큰배로 고기를 잡는 것도 보았어. 그런데 바닷물이 너무 짜서 다시 하늘로 가고 싶었어.

“친구들, 내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 비가 되면 다시 만나자!”

“하나님, 저를 수증기로 만들어 주세요.”



## 동생과 나

김 지 언 | 생연초등학교 (6)

“빨리 안일어날래!”

“으음~ 조금만 더...”

매일 이렇게 시작되는 지겨운 아침...

내가 동생을 깨우게 된 건...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난 날부터였다.

생각해 보면 난 정말 나쁜 누나이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성격 때문에 아침 일찍 잠이 깬 나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아래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동생 때문에 엄마한테 혼난 일들이 생각나자.. 예쁘게 자고 있는 동생 모습이 갑자기 밉게 보였다. 나는 이유없이 동생을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했다. 정말 아무 이유없이... 동생이 실눈을 뜨자 나는 이내 후회하고 말았다. 동생이 TV를 크게 틀고 큰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엄마 아빠께서 깨시고 말았다. 그리고 아침 일찍 동생을 깨운 벌로 내가 매일 동생을 깨워야 했다. 매일 동생을 깨우는건 꽤 힘들었다. 동생을 깨우러 가면 동생이 찬 발에 맞기도 했고, 손을 꼬집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내 잘못이었으니까...

동생과 내가 싸우면 언제나 내가 혼났다. 뭐든지 내가 양보해야 했고, 뭐든지 내 잘못이었다. 어쩌면 이게 누나의 당연한 임

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언제나 이런 누나의 임무가 불만스러웠다. 불만스러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둘째는 언제나 그래도 되고 첫째는 언제나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치만 내가 동생에게 크게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 동생은 나의 썬터이고, 나의 작은 샘물이라서 그런걸지도 모른다. 정말 동생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다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혼자있는 외동딸 보다는 장난꾸러기 동생이 있는, 불공평한 현상에 평범하게 지내는 '누나'가 좋은 것 같다.

자~ 그럼 내일을 위해 준비해볼까?

동생을 더 효과적으로 깨울수 있는 방법을...





# 나의 비밀

윤 소 희 | 동두천초등학교 (5)

나에게는 친구와의 비밀, 부모님과 비밀, 오빠와의 비밀, 동생과의 비밀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있다. 내 마음, 내 생활속에서의 비밀, 내 친구와의 비밀을 엄마에게 말하기 일쑤였지만, 내 비밀만은 엄마에게 말해주기 싫다. 괜히 엄마에게 말하면 탄로날 것 같고 창피하다. 하지만, 한번도 엄마에게 꼭 내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누가 날 좋아하는 것,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왓김에 말하면 안될걸 말한 적도 있다. 그 때마다 나는 꼭 이런 생각을 한다.

‘내 비밀을 엄마에게 말했네’하고 생각해봤자 이미 엄마에게 모두 말해버린 뉘다. 난 왜 이리 머리가 안돌아갈까? 엄마는 나의 비밀을 지켜 주겠지? 하지만 엄마에겐 아빠가 있는 법! 엄마는 내 비밀을 아빠에게 전해주었다. 난 엄마를 믿고 비밀을 털어놨는데... 엄마는 항상 내 마음을 울린다. 그럴땐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며 마구 혼낸다.

“너는 왜 그렇지? 생각도 없어?”

난 정말 왜 이럴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화도 울어도 보았다.

왜 비친 내 모습은 정말 미련해 보였다.

무엇보다 거울에 있는 애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어떤 애라는 것을...

이런일을 가지고 몇일씩 슬픔에 빠져 있는 않는다. 거울을 보고 “난 명랑한 아이야. 이 정도 일은 거뜬히 이겨 낼 수 있어!”라고 말한후, 그 일을 잊고 오늘 펼쳐질 나를 생각하며 다시 시작한다. 나는 항상 이른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금방 웃음이 난다. 부모님이 나보고 개구쟁이라고 하는데, 난 역시 못 말리는 개구쟁이이다. 내 비밀... 꼭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글짓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나만의 비밀이란 사람마다 한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괜히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겠다...



## 나의 영원한 친구

방 승 현 | 동두천초등학교 (6)

청소시간! 나는 이 소리를 들을때마다 즐겁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청소 덕분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청소하는 구역은 바로 관찰원이란 곳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었다. 보기보단 쉽고 간단해서 우리반 아이들은 관찰원 구역을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내가 전학을 온 후 이 자리는 내 자리로 되었다. 초기에 전학을 와서 그런지 나는 관찰원 청소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 나에게 관찰원 청소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도 역시 관찰원 청소였다. 그 친구도 역시 관찰원 청소였다. 그 친구의 이름은 승표였다. '홍승표' 나는 승표에게 청소방법을 듣고 열심히 청소하였다. 승표는 청소하는 날을 외우고 있었는지, 청소하는 날이 되면 "방승현! 청소하자"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3번만 먹으면 질린다고... 청소도 딱 3번 하니까 점점 싫증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승표가 항상 웃는 얼굴로 청소를 하니 '그만하자' 하는 말을 못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4일이나 지나자, 그만 단념 하고 승표를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승표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참 성실한 아이'

라며 칭찬을 하셨다. 그러자 나는 질투심이 생겼다. 왜냐하면 나도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선 웬만한 일론 칭찬도 안하신다. 어떡하면 좋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나는 결국 청소를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청소 시간이었다. 그런데 관찰원에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서 대충대충 청소하고 들어와, 승표에게 침을 튀겨가며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승표는 조금 눈을 흘기면서 의심을 했지만 곧 의심을 풀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으하하하하'하고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께 칭찬 받을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아침에 청소 안한 사람은 일어서라 하셨다. 나는 어쨌든 청소를 했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청소인 승표는 학교에 늦게 와서 청소를 못했다. 그래서 승표도 일어서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일어난 사람들을 무척이나 꾸중하셨는지 보는 나조차도 안쓰러웠다. 그래도 나는 '청소는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날밤 나는 늦게 자고 아침이 되었다. 나



는 늦잠을 자서 늦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를 못했다. 하지만 승표는 청소를 했다고 한다. 나는 혼날 것을 대비해 마음을 굳게 먹었다. 역시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어제와 같이 “청소 안한 사람 일어서” 너무나 무서운 목소리 였다.

나는 청소를 안했으니까 일어섰다. 그러자 승표도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를 위해 일어난 승표가 너무 고마웠다.



## 동 생

홍 지 현 | 보산초등학교 (6)

나는 매일 동생을 데리러 간다. 매일 선교원 차 안에서 낮잠을 자서 징징대는 동생을 업고, 안으면서 집까지 왔을 때, 내 등에서 내려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릴때마다 졸려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장난꾸러기 내 동생도 그럴때 꼭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내일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차안에서 자는 어린아이 같다.

선교원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이렇게까지 졸려워서 낮잠을 자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어제는 팔이 너무 아팠다. 동생 업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오늘도 3시 40분 쯤에 동생을 데리러 가야 한다. 좀 늦을 때도 있는데 그 때는 정말 짜증난다. 더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는 춥고... 또, 3명 이서 우산을 쓰고 올 때는 내 옷이 젖을 때가 많다. 그래서 난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동생 2명이서 쓰고 오라고 하면서 우산을 쥐버리고는 나혼자 뛰어온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몰래 숨어 있었다. 그런데 둘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도 귀엽고 예쁘던지 이제는 안테리러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구쟁이 내 동생, 집에서는 매일 때리고 싸우고 하여도 밖에 나와서는 내가 조금만 때려도 때리지 말라고 한다. 정말 밖에 나와서는 오빠답게 행동하는 내 동생을 칭찬, 또 칭찬할 것이다. 남자 아이라서 발로 차고, 때리고, 도망가고, 알미운 동생이지만, 나에게겐 정말 소중한 동생이다. 모든 누나 마음이 똑같지만 나는 다른 누나들과 똑같이 좋아하지 않고,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 아껴줄 것이다.





## 청 소

강 유 정 | 생원초등학교 (3)

“유정아, 빨리 니방 정리정돈해라!  
물 나올때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니까!”

나는 내 방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제일 싫다. 왜냐하면 내 방에는 내 물건과 동생들 물건이 많은데, 동생들은 어질러 놓고 정리를 안해서 내가 다 해야하기 때문이다.

“엄마, 물도 안나오는데, 오늘 청소 안하면 안되요?”

엄마는 큰소리로 “지금 나오니까 빨리 해야지!!”

나는 하는 수 없이 정리정돈을 짜증내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물을 한시간 밖에 안준다고 해서, 엄마는 승현이 유진이 씻기고, 빨래와 설거지, 화장실 청소를 땀을 흘리시며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를 돕기 시작했다.

물이 안나오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라며 변기를 청소하고 계실 때, 나는 엄마께 “왜, 화장실이 문제예요?”라고 여쭙어 보았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비위생적이 되어서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냄새가 심해서 더럽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야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샤워하고난 비누,

샴푸, 치약, 수건 등등 정리정돈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대소변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적도 있다. 화장실은 자기의 얼굴 이라고 말씀하신 말이 생각이 난다. 이제부터 샤워하고 난 후 물청소는 내가 해야겠다. 물이 빨리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물이 잘 안나오니깐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바빠졌다. 청소하는 것은 귀찮고 싫지만, 내 방이 깨끗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 공부할 때 상쾌하고 즐겁다. 청소에 대한 글짓기를 쓰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내 방과 화장실 청소를 잘 하면서 학교 주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교실청소, 아파트 단지 쓰레기 줍기를 하면, 내 방만 청소한 상쾌한 마음보다 열배는 더 상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과 나의 마음이 커다랗게 변할 것 같기 때문이다.

## 소중한 비밀

나 현 정 | 소요초등학교 (4)

나에게는 아주 큰 비밀이 한가지 있다.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우리 집안 사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비밀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아마 나를 놀릴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나에게 가장 큰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듣고 나는 많이 슬퍼서 울었다.

나는 우리집 사정이 그렇게 큰 비밀이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빠의 성은 안씨인데 나는 나씨이다. 그 이유는 옛날에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의 이름을 안현정 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씨로 이름을 지으면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봐 곰곰히 생각하다, 나현정으로 한 것이다.

나는 그냥 안씨로 하면 좋은데 이미 아이들도 내가 안씨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런 큰 비밀도 없어질텐데... 선생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다. 2반에 있는 고승윤이라는 아이가 나만 보면, 너 원래 나현정 아니지? 라고 하면서 놀린다. 하지만 나는 신경을 안쓴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거엔 신경을 쓰지 말랬다. 하지만 나는 막 화가 난다. 그래서 나도 놀린다. 그래도 나는 신경을 안쓸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내 성이 바뀔걸 우리 친척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나는 부를 때 나씨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언니오빠들이 나씨가 나아? 안씨가 나아? 라고 물어보면 둘 다 좋다고 한다. 나는 더 좋은 성씨가 나씨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나씨가 더 좋다고 했다. 아빠에겐 좀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걸 알고 계시겠지. 나는 그 큰 비밀만 없다면 이렇게 고민을 안할텐데, 그래도 나는 좋다.

왜냐하면 성씨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니까. 아~~좋다





## 참 좋은 아빠!

이 주 훈 | 생연초등학교 (3)

“으이그! 지 애비 닳아 가지고”

엄마가 잘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닳아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을 좋아하고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달팽이 잡으러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일요일엔 아빠와 달팽이를 잡으러 가요. 엄마는 밀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아빠는 엄마 몰래 나를 데리고 달팽이를 잡으러가요.

아빠는 달팽이 잡는 법을 잘 알고 계세요. 바위 밑이나 옆에 달팽이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살살 뒤져서 훑으라고 하셨어요. 아빠 말대로 바위 밑과 옆을 살살이 뒤지고 훑었어요. 하지만 2~3개 밖에 잡지 못했어요. 아빠는 달팽이를 잡고 나는 봉지를 들고 따라 다녔어요. 아빠와 달팽이를 잡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당구장을 하시면서 무척 바빠지셨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밤중이 되어야 들어오세요.

다른 아빠들은 일을 한 개만 하시는데 아빠는 대리점과 당구장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아빠는 안 힘들다고 하세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들이 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시킬 수 있어서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아빠와 달팽이도 잡고 여행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빠처럼 참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 아빠

김 은 별 | 탐동초등학교 (5)

우리 아빠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엄마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입  
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플 때에는 언제나  
걱정해 주시고, 병원에 데려다 주시며, 언  
제나 걱정으로 살아오신 아빠.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빠.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빠는 어느 누가 뭐래도 좋  
습니다.

우리 아빠는 서울에서 살아오시면서 대  
학도 못 나오셨지만, 훌륭한 우리 아빠.  
내가 4살이 되던 해 여기 동두천으로 이  
사 왔는데, 시내도 아니고 장림이라는 시  
골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밭에서 고추,  
배추, 오이, 호박, 상추, 가지 등 여러 가지  
채소를 가꾸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빠. 저번 달에는 의정부 등을 다니시면  
서 그 땅 주인이 심어놓은 조그만 묘목 나  
무들을 캐시면서, 새벽 6시에 나가셔서  
저녁 7시에 들어오시는 아빠.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나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상  
상해 봅니다.

어느 날, 내 숙제를 도와주시다가 문득  
나는 아빠의 새까맣게 타 버린 아빠의 목

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빠의 힘드신 모습  
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쉬시는 날이 없  
으신 우리아빠.

이 모습이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  
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만 두셨을까 하  
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요즈음 밭에 채소를 심으시느라 또 힘들  
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  
습은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난, 무서우시지만 유머감각이 있으시고  
자상하신 우리 아빠가 난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꼭!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이름  
난 의사가 되어서, 지금 고생하시고 힘드  
신 우리 아빠께 진정한 효도를 할 것입니  
다.

아빠! 지금은 힘드시고 고생하시지만, 제  
가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지  
금부터는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  
심히 하여서 꼭!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  
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 동 생

최 재 우 | 탑동초등학교 (6)

나는 동생이 없는 외아들이다.

나는 동네에 있는 동생들이나 학교에 있는 동생들을 좋아한다. 내가 아는 동생들은 하나같이 착하고 귀엽다. 내 말도 잘 듣는다. 동생 엄마들도 날 좋아하신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나도 많이 사 주었다. 하지만 웬지 동생이 없으면 허전하다. 나는 왜 친동생이 없을까? 나도 친동생 하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만 하나 있는게 좋다 라고 말씀하신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동생이 있으면 화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착한 동생들이 싫다니...

그 후 나는 친구가 한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나보다 훨씬 어린 동네 동생이 나한테 까불기 시작해서이다. 내가 위험하니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생을 잡고 웃으며 말을 해봤다. 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나는 친구가 말한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화를 내며 꾸중을 했는데, 웬지 마음에 걸린 것이다.

다음날 나는 그 동생을 만났다. 이제는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나보다.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갔다. 먹을 것을 사주고 다음부터는 형아 말 좀 잘 들어주라고 말했지만, 정신 없이 먹는 아이에게 내 말이 들릴 턱이 없을 것이다. 사주고 나서 동생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많은 생각을 했다. 친동생이 있는 것보다는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하는 동생이 있다는게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어렸을 때 일이지만 지금 동생은 5학년이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이 내 말을 잘 듣는다.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요새는 말도 잘 듣고 어리광도 잘 핀다. 친동생 이상으로 좋은 동생이다. 앞으로는 그 동생이 착하게 클 수 있게 신경도 써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주어야겠다. 하지만 이제 동생은 5학년이니깐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앞으로 착한 동생이 되기를 바란다.

## 쌍둥이 내 동생

이 단 비 | 동두천초등학교 (3)

나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이름은 은비인데 1분 차이로 내가 언니가 됐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결혼하신지 7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어서 무척 속상해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너무 너무 기쁘셨을 것이다. 은비는 1학년, 2학년 때는 나에게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나에게 언니라고 불렀다. 나는 은비가 나에게 언니라고 부르면 기분이 너무 좋다. 또 너무 예쁘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은비는 내가 아끼는 것을 빼앗아서 망가트릴 때도 있고, 자기만 컴퓨터를 하려고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은비가 나에게 언니라고 불러도 하나도 예쁘지 않다. 기분만 나쁘기만 한다. 하지만 나는 은비가 좋다. 한 가족이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내가 쌍둥이여서 좋을 때가 아주 많이 있다.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다 쌍둥이를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쌍둥이는 자기랑 같은 나이여서 좋고, 항상 붙어 다닐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를 안 해도 직접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쌍둥이여서 제일 좋은 점은 밤에 잘

때, 같이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쌍둥이가 좋다.

하지만 은비는 내가 싫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은비는 나랑 같은 반을 하기 싫다고 한다. 또 나를 때리고, 화를 낼 때가 많다. 그래서 자주 싸움이 날 때가 많다. 참 이상하다. 나는 은비가 정말 좋은데, 왜 싸움이 나는지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은비도 걸으론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내가 좋을 것이다. 얼굴은 틀리지만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얼굴은 틀리지만 마음과 생각은 똑같다. 내가 울면, 은비도 운다. 또 내가 웃으면, 은비도 따라 웃는다. 그래서 나는 은비가 화를 내도 은비가 제일 좋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때로는 싸울 때도 있겠지만, 서로 다정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지내고, 같은 날에 태어났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외롭지 않고, 늘 나와 닮은 또 하나가 있기에 때문에 어느 형제들 보다 더 친하고, 더욱 다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과 엄마, 아빠께 감사 드린다.



## 편지

황 은 서 | 보산초등학교 (2)

씩이 텃다고

편지 왔어요

봄비 내렸다고

편지 왔어요

예쁜 산 되었다고

편지 왔어요

연두빛 세상으로

놓러 오래요



## 마음속의 비밀

강 보 라 | 동보초등학교 (6)

비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깊이 숨겨져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비밀은 더욱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는  
어느새 마음속에 깊이  
잠들고 있던 비밀은  
마음속의 새가 됐어요

비밀은 한사람의 마음에  
중요한 약속이지요  
비밀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즐겁게 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 숨어있던  
비밀은 그 사람을  
수줍게 만듭지요  
그 사람의 얼굴도  
마음도 온통 마음속의  
비밀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줍은  
비밀도 아름답게 피어 나지요



## 청 소

김 형 군 | 생연초등학교

애들아, 애들아.

청소를 하자.

검은 곳 희게 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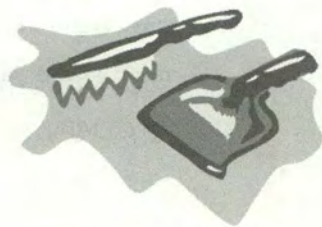
마음도 환해지고

친구와 함께 청소를 하면서

더욱 친하게 더 더욱 친하게

우리 마음도

더 깨끗이 더 깨끗이.



## 편지 왔어요

박 미 혜 | 보산초등학교 (2)

편지 왔어요  
소요산에서  
예쁜 꽃들이 피었다고.  
예쁜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소요산에서  
나무들이 씩씩하게 자랐다고  
멋있는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소요산에서  
졸졸졸 시냇물이 노래한다고.  
즐거워 편지 왔어요

이제 답장을 쓰래요  
꽃아, 나무야, 시냇물아,  
멋진 소요산을 만들어 주어  
정말 고맙다.







## 편지를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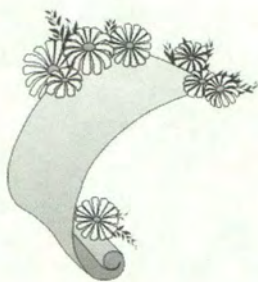
신 현 정 | 보산초등학교 (6)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더욱 친해지게  
친구에게 편지를 쓰세요

더욱 행복해지게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 동 생

김 단 비 | 보산초등학교 (2)

내 동생은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내 책을 찢는  
내 동생이 밉지만  
참아줘야 해요

귀엽고도 미운 내 동생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동생이 제일  
좋아요



나는 내 동생과의  
추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잊을 수 없는  
예쁜 추억이에요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때  
내 동생이 우산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요

동생 동생 내 동생  
내 동생은  
나의 보물이예요



## 청 소

이 민 지 | 보산초등학교 (4)

귀찮은 청소 시간  
종 땡땡 울리고,  
시끌벅적 하는  
운동장에서,

쓰레기 하나하나  
주워 가면은

더운날씨에 땀은 흐르고  
“아쭈, 더워.”  
“어쭈, 귀찮아.” 하며  
분만 투성이다.

드디어 청소가 끝난 시각

피곤한 몸 달래며  
집으로 향하면 집에서도  
대청소 한다.

변명 늘어놓으면  
내방 청소 나 혼자  
시켜, 힘든 하루...  
그래도 깨끗해서  
기분좋은 청소



## 편 지

이 민 지 | 보산초등학교 (4)

“편지 왔어요”

집배원 아저씨

빨간 가방 메고서

십리길 백리길 달리셨다죠

“편지 왔어요”

집배원 아저씨 부르릉 부르릉

오토바이 뒤 빨간 상자 매달고

골목 골목 달리신다죠

“편지 왔어요”

얼굴없는 예쁜 목소리

컴퓨터 모니터 속,

선생님, 친구 편지에도

안부라 우정이 담겨있어요





## 엄마의 마지막 선물

이 금 나 | 동보초등학교 (5)

편지라는 이름은  
있고만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유없는 눈물만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편지라는 이름

엄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나에게 아낌만을 준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까지도  
웃음만 주시려던 엄마.

웃음만을 띄우며  
눈감은 그 순간  
세상은 멈추어 버렸다.

엄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또다시 보게 된다면은

내눈에는 또 다시  
눈물만 흐르게  
되어가는 운명이겠지.

편지라는 이름은  
있고만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 사랑의 편지

엄 진 희 | 보산초등학교 (4)

친구야 친구야 나는 너를 좋아해  
친구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마음 깊숙히 생각하는 마음을  
하아얀 종이에 써서 보낸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정말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정말정말 사랑해

어버이 날에는 카네이션 꽃아서  
내사랑 담아논 편지를 드려요

내마음 가득한 사랑담은 편지를  
내친구 부모님 기분 좋게 읽지요





## 아빠 얼굴

최 진 수 | 동보초등학교 (1)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

그중에서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요



## 비밀

이 수 진 | 보산초등학교 (5)

나에게는 비밀이  
수없이 많지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 싫어요  
알려주기 싫어요

친구들에게  
살짝 속삭이다가

다른 친구가 오면  
화들짝 놀래요



나에게는 비밀이  
수없이 많지요

나의 비밀은  
창피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누가 내 비밀을 알면  
얼굴이 붉어져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울기도 해요



## 편 지

김 해 진 | 보산초등학교 (4)

아무소식 잘먹는  
먹보태지 편지...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아무소식 잘 전해주는

우리의 빠른 소식통  
먹보태지 편지...

심술쟁이, 마술쟁이  
장난꾸러기 편지...

기쁜소식 먹으면  
내 눈엔 기쁨이...  
슬픈소식 먹으면  
내 눈엔 슬픔이...

아무소식 잘먹고,  
때마다  
심술쟁이, 마술쟁이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소식통  
고마운 편지...



## 청 소

김 해 진 | 보산초등학교 (4)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반 청소시간

심술 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유일한 청소시간

이곳저곳 쓱쓱쓱  
그래도 열심이다

걸레와 빗자루로  
이곳저곳  
깨끗이 더 깨끗이



드디어 청소시간 끝!

우리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기쁨 반  
불만 반



# 시민의장 수상자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 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1	제1회	'89. 9. 25	문화장		한국국악협회시지부장	남	이운형	향토문화창달유공	
2	〃	〃	공익장		시위민봉사회장	남	장기목	시민복지증진유공	
3	〃	〃	체육장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자문위원	남	신태룡	체육발전유공	
4	〃	〃	애향장		시정자문위원장	남	안도제	향토발전유공	
5	〃	〃	효열장			여	한계순	부모공양유공	
6	제2회	'90. 9. 29	문화장		문화원장	남	김성근	향토문화창달유공	
7	〃	〃	공익장		평통위원	남	이재풍	시민복지증진유공	
8	〃	〃	체육장		시정자문위원	남	박중양	시체육발전유공	
9	〃	〃	효열장		2/8 반장	여	전옥자	부모공양유공	
10	제3회	'91. 10. 7	새마을장		생연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강정원	새마을운동활성화	
11	〃	〃	공익장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	남	이영락	시민복지향상	
12	〃	〃	근로장		주미노조지부장	남	김관목	근로자지위향상	
13	〃	〃	체육장		생연2동 체육회장	남	간두범	체육발전	
14	〃	〃	애향장		동정자문위원장	남	김판돌	향토발전과주민화합	
15	〃	〃	효열장		현대건설 대표	남	김용설	부모공양	
16	제4회	'92. 10. 6	문화장		동두천국교장	남	심상옥	지역교육발전	
17	〃	〃	새마을장		시새마을부녀회장	여	고순자	새마을운동활성화	
18	〃	〃	산업장		양곡상연합회시지부장	남	김문규	지역경제활성화	
19	〃	〃	근로장		주미노조시지부상무	남	박태균	근로자복지향상	
20	〃	〃	체육장		국가대표 병상선수	남	송재근	국위선양	
21	〃	〃	애향장		내행동동정자문위원장	남	이기복	지역발전	
22	〃	〃	효열장		시민	남	임원금	경로효친사상선양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 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23	제5회	'93. 10. 6	문화장		시민	여	어경자	지역교육발전	
24	〃	〃	새마을장		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김일태	새마을운동활성화	
25	〃	〃	근로장		(주)서광 생산부차장	남	최재풍	근로복지향상	
26	〃	〃	체육장		시축구협회회장	남	고흥기	체육발전유공	
27	〃	〃	애향장		한미음협의회장	남	목태신	지역발전유공	
28	〃	〃	효열장		시민	여	전금향	경로효친실천	
29	제6회	'94. 10. 6	새마을장		상패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신현우	새마을운동활성화	
30	〃	〃	근로장		동안동자율방범대원	남	이원철	근로복지증진	
31	〃	〃	체육장		생연3동 바르게살기운동부회장	남	박도연	체육발전유공	
32	〃	〃	애향장		생연3동 동정자문위원장	남	함성찬	지역발전유공	
33	〃	〃	효열장		시민	여	이옥례	경로효친실천	
34	제7회	'95. 10. 6	문화장		동두천여상교장	남	홍경섭	지역교육발전	
35	〃	〃	새마을장		동안동새마을지도자	남	최광석	새마을운동활성화	
36	〃	〃	근로장		동두천전화국직원	남	최원규	근로복지향상	
37	〃	〃	체육장		전동두천국민학교교사	남	송길원	체육발전유공	
38	〃	〃	애향장		시민	남	백학중	지역발전	
39	〃	〃	효열장		광암동부녀회장	여	최금순	경로효친실천	
40	제8회	'96. 10. 5	문화장		동두천문화원이사	남	이명수	지역문화발전	
41	〃	〃	새마을장		지행동시설채소작목반장	남	이덕재	새마을운동활성화	
42	〃	〃	근로장		농어민후계자연협회장	남	이구성	새마을운동활성화	
43	〃	〃	체육장		동두천시빙상연맹회장	남	김홍수	체육발전	
44	〃	〃	애향장		통장	남	양학중	지역발전	
45	〃	〃	효열장		주부	여	조금현	경노효친실천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 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46	제9회	'97. 10. 6	문화장		사진작가	남	이필성	지역문화발전	
47	〃	〃	새마을장		주부	여	김명임	새마을운동활성화	
48	〃	〃	근로장		환경미화원	남	정해성	근로복지향상	
49	〃	〃	애향장		사업가	남	이광성	지역발전유공	
50	〃	〃	산업장		작목반장	남	안윤재	농업발전유공	
51	〃	〃	체육장		체육교사	남	이강수	체육발전유공	
52	제10회	'98. 10. 9	시민봉사장		전시의원	남	김경차	시민봉사	
53	〃	〃	문화체육장		사업	남	어운선	문화체육	
54	〃	〃	지역개발장		사업	남	박무하	지역개발	
55	〃	〃	향토애향장		숙박업	남	이재혁	향토발전	
56	〃	〃	효행선행장		음식업	남	홍재승	선행부문	
57	제11회	'99. 10. 6	시민봉사장		신체장애인복지회장	남	최홍철	시민봉사	
58	〃	〃	문화체육장		불령연합회장	남	이정식	문화체육	
59	〃	〃	지역개발장		중앙동시의원	남	김택기	지역개발	
60	〃	〃	향토애향장		중앙동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남	정문석	향토·애향	
61	〃	〃	효행선행장		보산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남	이종오	효행·선행	
62	제12회	'00. 10. 6	시민봉사장		시민	남	남택운	시민봉사	
63	〃	〃	문화체육장		임대업	남	차영환	문화체육	
64	〃	〃	지역개발장		사업	남	안민규	지역개발	
65	〃	〃	향토애향장		주부	여	김명자	향토·애향	
66	제13회	'01. 10. 20	시민봉사장		새마을지도자동두천시협의회장	남	장호순	시민봉사	
67	〃	〃	지역개발장		노인대학장	남	홍인기	지역개발	
68	〃	〃	향토애향장		개인택시운영	남	이용섭	향토·애향	

## 逍遙의 脈

< 제15집 >

2001년 12월 26일 인쇄

2001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처 : 동두천문화원

TEL : (031) 865-2923

FAX : (031) 863-1020

발행인 : 홍 경 섭

편집인 : 이 계 홍

<비매품>



